

숲의 도시 나는 안산에 산다

안산시 시정소식지 제 454호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일동! 묵념!

현충일 6월 6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
역사에 기록될 모든 분들의 넋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함께 전합니다.

08

안산착한가게 시리즈

훈이네 - 제철반찬으로 한 상 가득
청학취냉면 - 머리끝까지 느껴지는 시원함
한승푸드 - 매일 먹는 음식이 보약
예술세탁 - 솜씨와 마음씨가 예술

10

미술도시 안산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 '장성순'
작품 200여 점 안산시 기증... 안산의 화가로
사랑받길...

12·13

싱그러운 5월 숲에서 놀자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5월, 숲에서
맘껏 뛰어 놀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행복이다.

14·15

안산시 출산장려정책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큰문제로 떠올랐다.
알아두면 유용한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해보자.

21

쓰레기도 자원이다!

재활용은 똑똑한 분리배출이 답이다!
최근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 하는 사건으
로 인해 재활용 분리배출을 잘하자는 인식이
커졌다.

6.1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

발행일 2018년 5월 30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 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안산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확대 · 설치

비명만으로 경찰 연결, 약자 대상의 ‘묻지마 범죄’ 막는다



한적한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시민들이 이용에 부담을 느낀다. 안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비상벨을 설치했다.

안심 비상벨은 위험을 느낀 시민이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를 경우 곧바로 경찰서 112상황실로 연결된다. 비상벨조차 누를 수 없는 위급상황에서는 비명만 질러도 이상음원 감지기가 이를 감지해 112상황실로 전달한다. 이어 경

찰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마다 매겨진 고유번호와 위치 정보를 확인한 후 곧바로 출동한다. 이처럼 안심비상벨은 위험상황시 즉각적 대처가 가능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화장실 외벽에는 설치만으로도 범죄 예방효과가 큰 ‘비상벨 LED안내판’이 마련됐다.

이미옥(55, 선부동) 씨는 “화장실 입구에 경찰 마스크트 포돌이 포순이가 그려진 비상벨 안내판이 설치되고, 비상

벨과 소리감지기가 화장실 내부에 있어 화장실 이용하는 데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가끔 화랑유원지로 산책을 나왔다가 급하게 공중화장실을 찾게 되면,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다 공원 조명조차 어둡고 CCTV도 없어서 이용이 꺼려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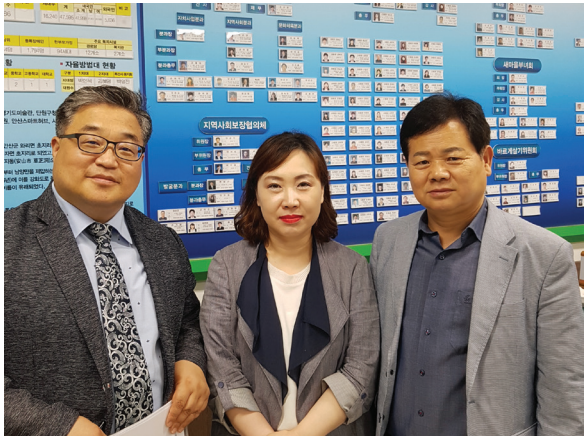
안심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5월 말 기준 상록구 노적봉공원과 단원구 와동공원, 화랑유원지 등 69개소에 이른다.

안산시 환경정책과와 상록경찰서, 단원경찰서가 함께 사후관리를 맡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며, 범죄예방 효과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상봉 안산시 환경정책과장은 “화장실 밖에 설치한 비상벨 LED안내판은 설치만으로도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안심비상벨 설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 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244)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안산시, 공동주택 대상 찾아가는 위기가구 일제 조사

“복지사각지대를 밝히는 환한 마음으로 사전에 예방해야”



안산시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직접 팔을 걷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찾아 손을 내미는 것이다.

지난 4월,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안산시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 지원하는 사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했다. 이에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2개월 동안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인 ‘행복이(e)음’은 전기요금 등의 연체정보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하지만, 아파트는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사각지대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산시는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은 LH임대아파트 9개소를 중심으로,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관리비 또는 임대료를 체납한 세대, 가스 · 수도 ·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

가 ‘0’인 세대,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그리고 이웃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위기가구로 제보한 세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각 행정복지센터의 직원,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 관리사무소 등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며,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사업, 기초생활보장 등의 공적 지원과 통합사례관리,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민간 자원도 연계한다.

초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굴팀장을 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함성근 소장은 “과거에는 공동책임의식이 강해 마을 안에서 서로 돕고 돌보는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은 급속한 현대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덜 갖는 편”이라며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민관이 협력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김보영 복지팀장은 “예전에는 행정복지센터로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야 했다. 직원들도 많은 민원으로 깊이 있는 상담을 할 수가 없어 지원 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것이 복지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사전조치가 가능해지고 대처 기능이 높아졌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러한 이웃을 발견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 의 : 안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031-481-3024)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안산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 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6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 예산의 최종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 ·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공개모집 40명, 동 지역회의 추천 25명, 비영리단체 및 교육 · 연구기관 단체 추천 14명 등 총 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또는 안산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 사업체 근무자이며, 예산 · 회계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자, 사회적 약자 등을 우선 선정한다. 공개모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안산시 홈페이지(공고 또는 예산공개시스템-주민참여예산방) 내용을 참고하여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법무과로 오는 6월 14일까지 방문 · 우편 ·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가 안정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려면,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어 더 많은 주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역량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 문 의 : 안산시 예산법무과(031-481-3028)



극단 예지촌의 연극 ‘농토’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대상 수상



6월 5~6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 예지촌의 연극 ‘농토’가 6월 5~6일 이틀 동안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무대에 오른다.

연극 ‘농토’(윤병조 작, 염상태 연출)는 지난 4월에 열린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1개 시·군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단체상 부문 대상뿐 아니라 개인상 부문 연기대상(도창선·윤미라)과 신인상(이동건)도 함께 거머쥐었다. 오는 6월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다.

극단 예지촌은 1991년 전국연극제 수상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좋은 성적을 거뒀고, 특히 별망성예술제 개막전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9년 전 대상에 이어 이번 ‘농토’ 대상까지 받음으로써 확실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염상태 연출가는 “요즘 세대는 마침내 터질 것이 터졌다고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는 왜 침묵만 하고 있었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했다”며 “침묵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외쳐왔다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농토’는 우리 주변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자의 삶을 리얼하게 잘 묘사한 고(故) 윤조

병 희곡가의 작품이다. 작가의 농촌 체험을 바탕으로 한 농촌 3부작 중 하나로 동학혁명, 일본 식민지 시대, 한국전쟁과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진 자의 억압과 이에 저항하는 힘없는 이들의 모습, 국가적 담론이나 정책의 변화를 이용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지배자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안산연극협회 성정선 지부장은 “연극은 양상불이 가장 중요한데 배우들이 열심히 해줘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극은 매일 연습을 필요로 하며 누구 한명이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작업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안산 공연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본선 무대에서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연극제에서 연기대상을 수상한 도창선, 윤미라 씨는 “농토에 참여했을 때 영광스러웠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무대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 나 혼자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양상불을 잘 맞춰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연극제에 처음 나가는 거라 굉장히 들떠 있다.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만큼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극 농토를 통해 농민들 삶의 애환과 역사 속에 묻혀진 큰 사건들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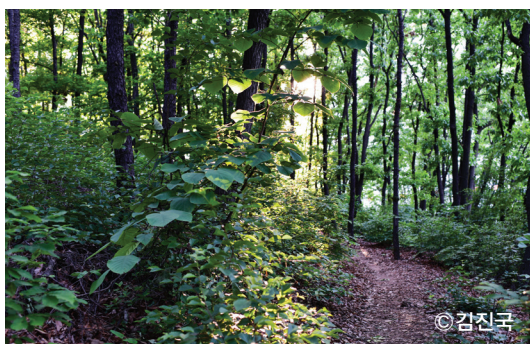
◆ 일 시 : 6월 5일(오후 7시 30분), 6일(오후 4시) / 전석 : 2만 원

◆ 장 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관모산 둘레길 조성



안산시는 단원구 초지동 시민시장과 관산초등학교 주변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증가하는 입주민과 지역민, 관산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관모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관모산은 동네 작은 야산정도로 기존에도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이 있었는데, 새롭게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운동시설을 보완해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로 정비된다. 또 관산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야외학습장을 지어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숲길조성 길이는 0.81km로 숲길개설 701m, 보행매프 397m, 데크로드 123m 등으로 조성된다. 관모산은 낮은 산이라지만 산 중턱을 산책하다보면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보여 일상의 여유를 찾기에 충분했다.

녹지와 담당자는 “관모산은 개인사유지와 사유지가 함께 있는 곳이다. 사유지인 산 테두리를 둘레길로 조성하며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6월에 마무리된다. 지역주민과 어린이가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과 산림휴양공간이 되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관모산에서 만난 주민들은 둘레길 조성을 반겼다. 홍헌표(선부동) 씨는 “안산은 동네마다 낮은 산도 많고 공원도 잘 조성되어 참 좋다. 관모산은 평소에도 종종 찾던 곳인데 둘레길이 조성된다니 반갑다. 오늘은 후배와 산악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며 페달을 밟았다. 오후가 되자 가족끼리 산을 오르는 주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위치 : 단원구 초지동 산51 일원)

◇ 문 의 : 안산시 녹지과(031-481-2347) /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하세요

아동수당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지급가능

오는 6월 20일부터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아동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0~5세 아동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90% 가구 대상)여야 한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 1명당 월10만원으로 매월 25일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결정되며, 3인가구 월 1천 170만원, 4인가구 월 1천 436만원, 5인가구 월 1천 702만원, 6인가구 월 1천 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면 9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 출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계산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 수당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안산시는 아동수당 대상자가 약 3만명으로 대규모 신청이 예상되므로, 사전신청 기간 동안 가급적 시기를 분산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 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319)

학생이 직접 기획 · 운영하는 ‘미술전시회하자, 꿈그리기’ 꿈의학교

60여개 다양한 수업… “진로 탐색, 꿈 실현 도움”



경기꿈의학교(이하 꿈의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한다. 꿈의학교는 경기도 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 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 프로그램을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이다. 꿈의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공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마을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있다. 꿈의학교 중 하나로 안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술전시회하자, 꿈그리기’ 꿈의학교를 방문했다.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미술전시회하자, 꿈그리기’ 꿈의학교는 지난 4월 21일 개교해 유화, 수채화, 캘리그래피, 도예수업을 20회에 걸쳐 진행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하며 80%이상 출석할 경우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김민지(안산서초, 5학년)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엄마가 꿈의학교를 알려줘서 오게 됐어요. 오늘이 세번째 수업인데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릴 수 있어 좋아요.” 라고 말했다.

한혜민(별망중, 1학년) 학생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림을 그리니 좋아요. 패션 디자이너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즐거운 그림 그리기를 할 생각입니다.”고 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온 학부모 권윤정(신길동, 46세) 씨는 “작년에 큰 아이를 꿈의학교에 보냈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해 올해는 작은 아이도 입학시켰어요. 3학년인 둘째는 어린이날 재미있었던 일을 그리면서 즐거워하네요.”라며 “지금도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전시회하자’의 김용남 교장은 “지나해 꿈의학교를 회상해 보면 자유로움 속에서 창의성은 더욱 빛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은 점점 더 재미있고 학생들과 정도 흠뻑 들었던 거 같다.”고 회상했다. 이어 “올망졸망한 눈빛의 초등학교생들과 질풍노도의 중학생들, 진로를 결정하고 입시 준비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까지 함께 모여 멋진 전시회를 꿈꾸며 희망으로 붓을 들었기에 올해도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미술전시회하자’는 오는 12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꿈의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안산에서는 ‘미술전시회하자 꿈그리기 꿈의학교’ 외 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마을교육공동체(<http://village.goe.go.kr>)에서 지역별 탐색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 문 의 :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http://village.goe.go.kr>)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전국 최대 규모의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 공모

대상 3천만 원 상금… 해외 전시 등 파격 지원

전국 최대 규모의 단원미술제가 선정 작가를 공모한다. 단원미술제는 차별화된 공모 방식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미술계와 작가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단원미술제는 지난 2015년 작품공모에서 작가 공모로 전환한 이후 보다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작가의 의도와 맥락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포트폴리오와 실물 작품 심사뿐만 아니라 작가 인터뷰까지 추가했다. 이는 단일 작품보다는 우수한 작가를 선정하는데 공모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

단원미술제 미술부문 대상 작가에게는 국 · 공립 기관에서 주관하는 작가 공모전 가운데 최고 금액인 3천만 원이 상금으로 주어지며, 단원미술상 2명에게는 각 1천만 원, 17명의 선정 작가들에게는 각 1백만 원의 작가지원금이 제공된다.

상금 외에도 선정 작가 20명에게는 해외 워크숍과 해외전시의 기회도 제공한다. 국내에서 유일무이하다.

특히,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호텔아트페어(AHAF) 참여와 다양한 전시 그리고 지난 선정 작가들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각예술 전 부문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차 포트폴리오 접수가 시작되며, 2차 인터뷰 심사와 3차 실물 작품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수상작품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예 · 문인화 부문, 6월 2일까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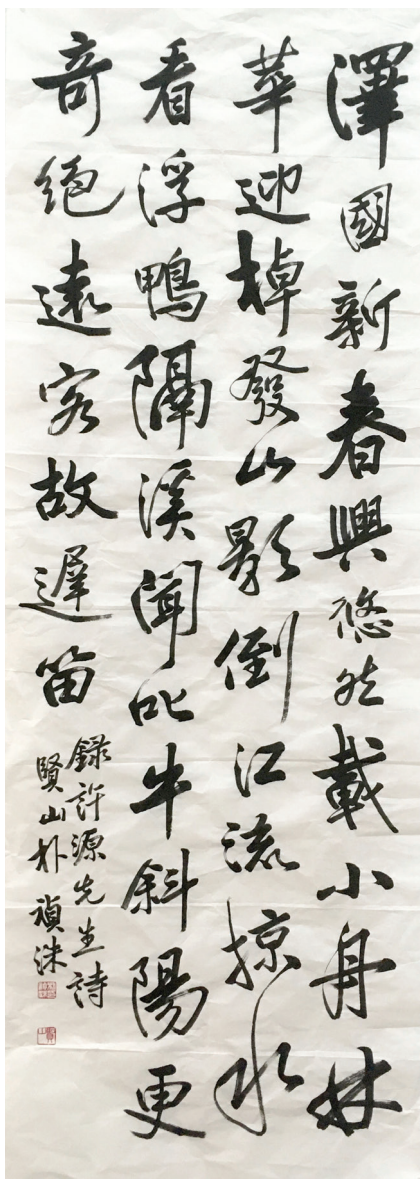
서예 · 문인화 부문은 지난 4월 작품공모를 통해 박정수 ‘허원선생의 시-박의동환래’가 대상 작품에 선정 됐다. 전국에서 총 548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15명의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57점의 수상작품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 박정수 씨는 “묵향 속에 한 획 한 획 난정서(왕희지가 쓴 행서첩)를 임시 하던 중 듣게 된 뜻밖의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매번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붓을 벗 삼아 열심히 썼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큰 상을 탈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단원미술제의 한 심사위원은 “전통 서화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의 창작 열이 높은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다.”며 “대상 작품은 행초서체로서 유려하게 흐름이 좋고 활달한 수작이었다.”고 평했다.



박정수 수상자



박정수 수상자 ‘허원선생의시-박의동환래’

◇ 문 의 : 단원미술관(031-481-0508)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2018 안산 · 시흥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 ‘성황’

1천6백명 구직자 참여, 50개 업체 317명 현장 채용



2018년 안산 · 시흥스마트허브 합동 채용박람회가 삼화양행, 영풍정밀, 엘지유플러스, SPC 삼립 등 50개 구인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10일 시흥시 정왕동 미관광장에서 열렸다. 반월 · 시화스마트허브 1만 여 업체 중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이날 채용박람회는 20대 청년부터 50~60대 중 · 장년 구직자 1천6백여 명이 참여해 그 중 830명이 즉석 면접을 치렀고 317명이 현장에서 채용됐다.

“군 제대 후 삼성반도체 협력업체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채용박람회에 왔다.”고 밝힌 이준혁(선부3동, 26세) 씨는 “통신기기 부품 생산, 검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며 “오늘 튼튼한 직장에 취직해서 부모님께 좋은 소식 전하고 싶다”고 했다. 영업전문 인력을 찾고 있는 통신업체 엘지유플러스의 강유리 성포지점장은 “우리 회사는 영업사원을 채용해 전문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며 “저도 매장 직원으로 출발해 지점장으로 승진했고, 본사 임원까지도 승진이 가능하다. 패기 넘치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안산 · 시흥 합동박람회는 일자리 관련 여러 기관들이 함께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자선형성을 돕는 ‘일하는 청년 연금’과 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연간 최대 120만 원 씩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 등에 대해 소개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박람회 참가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도 박람회에 나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씩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 문 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19)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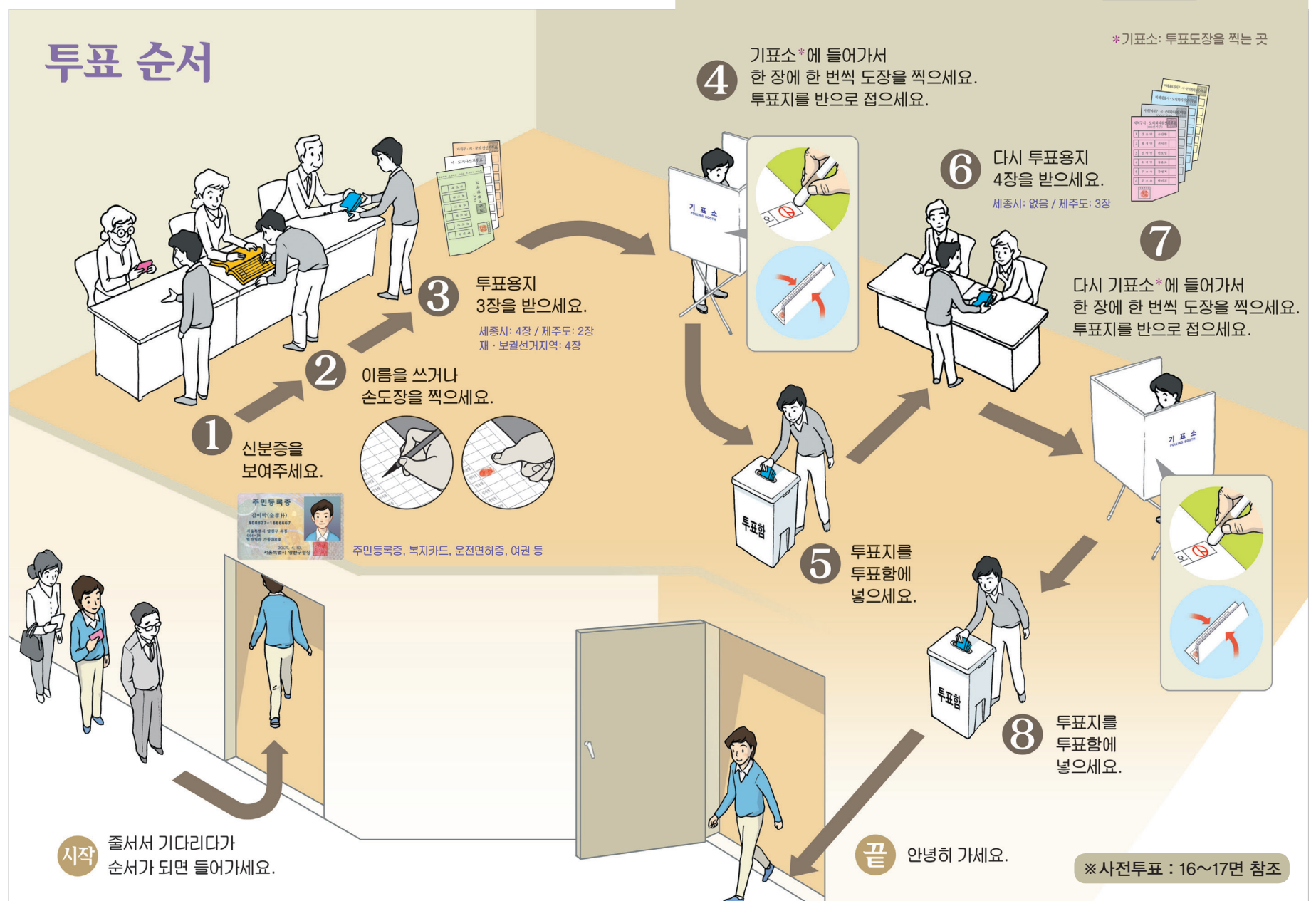


6월 13일은 투표하는 날

쉽게 설명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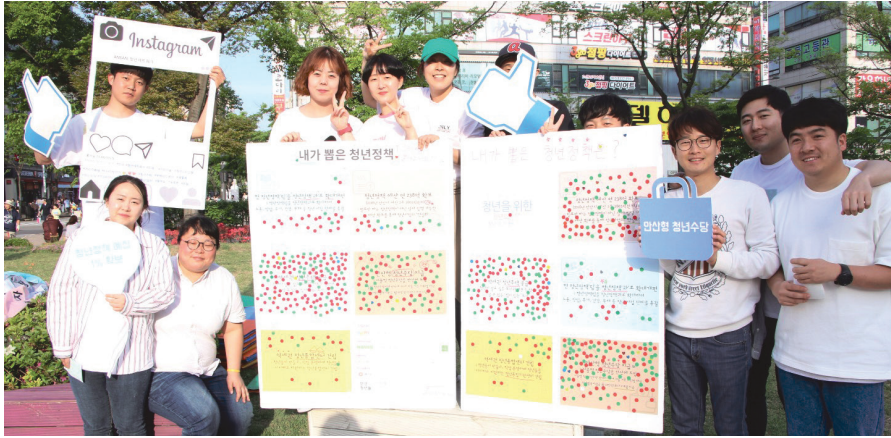
*기표소: 투표도장을 찍는 곳

투표 순서





경기안산청년유니온, 지방선거 앞두고 한 목소리 맞춤형 청년수당, 안심알바 프로젝트 등 청년정책 제안



안산시장을 포함해 경기도의원과 안산시의원을 뽑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지역 청년단체인 '경기안산청년유니온(이하 안산유니온)'이 한 목소리를 냈다. 안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산유니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일자리 문제를 당사자 스스로 해결해 가기 위해 지난 2010년 창립한 '청년유니온'의 안산지역 조합원 모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만 15~39세 청년이 가입하는 전국 단위 커뮤니티 연합이다. 그동안 편의점, 감정노동자,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등에 대해 조사 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며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운동, 노동착취기업 실태를 폭로하는 블랙기업운동, 최저임금 인상운동, 청년기본법 제정운동 등 정책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안산유니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일자리와 노동 문제 관련 노동인

권 향상을 위해 무료 노동상담, 캠페인, 세미나, 정기모임 등을 진행한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등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조직 내 청년정책팀을 신설,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고 청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안산유니온 조합원들은 이에 발맞춰 22개의 안산형 청년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4월 23일, 안산유니온 조합원과 안산청년네트워크 집행위원 그리고 안산시 관계 공무원들은 토론회를 진행, 건강검진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무사 지원, 매거진 제작, 안심 알바 등 청년들이 제안했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 안산유니온은 안산청년네트워크와 함께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안산시로 거듭나기 위한 청년정책 핵심 과제 선정 설문조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5일 국제거리극축제에서는 안산시장이나 시의원들에게 제안할 안산형 청년정책 핵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설문을 받기도 했다.

설문조사결과 안산청년들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안산형 청년수당 지급 △청년정책 예산 연 238억(2018년 안산시 예산의 1%) 확보 △현 청년정책팀을 청년정책과로 확대 개편 △역세권에 청년종합센터 건립 등의 정책을 선호했으며, 특히 청년주택과 청년수당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안산유니온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재, 퇴직금, 휴가 등 노동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 '경기안산청년유니온'을 검색하면 된다.

◇ 문 의 : 청년유니온 홈페이지(<http://youthunion.kr>)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상록구 사동 '청년 심야식당' 오픈 음식과 대화가 주는 힐링을 경험하다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문득 외로울 때, 정다운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작은 식당이 동네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청년들과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사동 주민 장재욱 씨의 아이디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청년 심야식당(이하 심야식당)'으로 탄생했다.

심야식당은 한 달에 한 번, 사동 복합문화공간인 '마을숲'의 공동부엌에 차려진다. 일식집 느낌의 현수막과 한지 등의 인테리어로 꾸며지며 청년들의 아지트로 변한다. 요리는 매달 바뀌는 중·장년층의 어른 셰프(chef)가 담당하며, 청년들은 준비된 음식을 함께 먹으며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심야식당은 운영진으로 봉사하는 청년들이 회의를 통해 그달의 셰프와 주제를 정하고, 2명의 보조 셰프가 요리를 돕는다. 특히, 사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재욱 씨와 최은영 씨가 보조 셰프를 자청해 매달 봉사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열린 심야식당의 셰프는 추영희 사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신대광 원일중 교사였다. 4월 심야식당의 첫 문은 연 추 위원장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삼겹살 두루치기와 콩나물국을 메뉴로 선정, 청년들에게 '집 밥'의 따스함을 전했다.

5월의 셰프로 활약한 신대광 교사는 어묵탕과 사케를 준비한 후 '친구'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하게 꺼내놓으면 그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다소 소극적이었던 친구들도 어느새 본인의 생각을 나누며 대화가 주는 치유(힐링)를 경험하곤 했다.

추영희 위원장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동네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세대를 넘어 함께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며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요즘 세대들이 자기 생각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심야식당을 처음 제안했던 장재욱 위원은 "집에 가는 길에 이런 모임이나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동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현실로 이뤄졌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다"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밝힘으로써 단순히 공감만이 아닌 특별한 힘을 얻기도 하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그 안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일반적으로 청년들보다는 셰프들이 나이가 많으니 그들의 생각을 통해 청년들도 삶의 지혜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밝혔다.

퇴근 후 저녁 8시, 사동 심야식당의 문은 매달 한 번 뜻밖의 선물처럼 열린다. 심야식당 관계자는 "청년들과 소통을 원하는 중·장년 셰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인생 선배들과의 대화와 공감이 필요한 청년들도 언제나 환영한다."고 했다.

외롭고 힘들거나 사람의 온기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 사동 심야식당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문 의 : 카카오톡 '사동주민자치'(간사:010-8484-1661)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상록구 일동 ‘영차 어린이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공동체의 울타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이를 더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의 철학이 담긴 말이기도 하다.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하나 밖에 없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가 큰 고민으로 대두됐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뜻 맞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아이의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늘고 있다.

상록구 호동로3길 13-1에 위치한 ‘영차 어린이집(이사장 임병광)’은 지난 2001년 개원 후 17년째 공동육아의 맥을 지키고 있는 공동육아 사회협동조합이다.

임병광 이사장은 “요즘 아이들은 형제·자매나 친척들 속에서 자라나기보다는 고립된 핵

가족 속에서 자라다보니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익혀야 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서툴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공동육아에서 아이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놀이와 나들이를 통해, 어른들은 어린이집 운영과 부모참여를 통해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고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말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장으로서의 공동육아에 대한 설명이다.

영차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인근의 작은 산과 공원을 나들이한다. 텃밭농사, 건강한 먹거리 교육 등 자연친화적인 생태교육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생관계를 배우고 배려와 존중의 미덕을 익힌다. 급식이나 간식은 어린이집의 교육활동과 연계된 식단으로 아이쿱(icoop) 생협이나 두레 생협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으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급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놀이와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수와 한글을 깨우치도록 돕고, 습식 수채화 등 예술작업, 목공·바느질 등 수공예 활동까지 병행하며 사회성과 도덕성, 감수성과 인지력의 기반이 되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기초를 닦는다.

조합원이 되어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의무와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다. 공동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매월 1~2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회의와 연 3회 부모교육에 참여할 뿐 아니라, 청소와 수업 도우미 등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보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함께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겪으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 문 의 : 영차 어린이집(031-502-0104) /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⑦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TESOLLO® 테솔로 -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한다 삶의 변화를 이끈다

공학도 셋이 모여 창업, 일년 만에 큰 성과



발표나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 필수품인 ‘프리젠티어(presenter)’가 진화하고 있다.

청년큐브 초지캠프에 입주한 테솔로(대표 김영진)는 자체 기술인 움직임 감지 센서 모듈을 활용한 스마트 프리젠티어 ‘컨덕터 엑스(Conductor X)’를 개발,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슬러시(SLUSH, 테크놀로지 기반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나가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레트로(retro, 복고풍의) 가전 전문업체인 엘레트론 코리아에 기술을 이전했다. 기존의 프리젠티어가 붉은 레이저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가리키는 것에 그쳤다면 테솔로의 제품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포인팅의 크기와 선의 굵기, 색, 글씨 크기를 발표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자유 곡선이나 밑줄 기능, 자유로운 필기가 가능하다.

김영진 대표는 컨덕터 엑스에 대해 “강의시간에 교수님 강의 자료에 부등호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수학공식을 설명하던 교수님께서 급기야 빔 프로젝터 스크린에 분필로 부등호를 그려 넣었고 그 다음 화면에도 (그대로 남아 있던) 부등호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칠판에 스크린을 덧대어 사용하는 강의 환경의 불편함을 바꿔보겠다는 의욕에서 시작된 제품”이라고 설명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빛으로 쓰는 빔 프로젝터가 큰 전시장이나 밝은 곳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형 LED 패널 등 플랫(flat) 스크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테솔로의 제품이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또한 테솔로는 자료 화면을 확대하고 이동하는 기능을 추가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프리젠티어에 들어가는 센서를 교육용 드론 등 모션 인식 프로그램에 접목

해 쓸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해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이다. 이러한 테솔로의 기술들은 국내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해외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도 앞두고 있다.

김영진 대표는 전자학과, 의료IT학과를 복수 전공했으며 로봇동아리에서 만난 김완수 씨와 과학기술공모전 대상, 지능형 모형차 경진대회에서 매스 워크(Math works) 특별상, 주행부분 동상 등을 수상했으며, 대학도 수석으로 조기 졸업한 인재다.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로봇틱스(robotics, 로봇에 관한 기술 공학적 연구)를 전공하면서 지난 2017년 6월, 대학 동기인 김완수 씨 등 공학도 셋이 모여 창업했고,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일구고 있다.

팀명 테솔로(Tesollo)는 ‘Technology(과학기술)’과 ‘sole(유일한)’의 합성어로 ‘유일한 기술’을 추구하며, ‘독특한 기술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팀의 목표가 담겼다.

김영진 대표는 손이 없는 사람들이 로봇 의수를 이용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피부 변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센서를 개발·보완하면서 헬스케어나 피트니스 등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문 의 : 테솔로(010-4560-1411)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착한가게 시리즈-⑤



서울예대 맛 집 '훈이네'

10가지가 넘는 제철 반찬으로 한 상 가득 '만족'



여기저기 축제도 많고 나들이하기 딱 좋은 봄, 이번에 소개할 안산착한가게는 봄만큼 기분 좋고 따뜻한 느낌이 감도는 한식당 '훈이네(사장 김지훈)'다. 10가지가 넘는 제철 반찬과 국, 보글보글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 담백한 달걀찜까지, 한 상 가득 차려지는 점심특선과 콩나물 삼겹살이 인기다. 특히 콩나물 삼겹살을 다 먹고 난 후 각종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으로 맛을 낸 볶음밥이 인기가 많다. "볶음밥을 먹기 위해 삼겹살을 주문한다"는 손님이 있을 정도. 반찬

수와 맛,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한 '훈이네'는 블로거들 사이에서 이미 서울예대 '맛 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직하게 14년째 한 곳에서 훈이네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훈 사장은 '음식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의 신선함'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직접 장을 보며 특히 고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거래처도 한 곳만 이용하지 않고 세 곳으로 나눠 그때그때 신선한 고기들을 구입한다.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여야 저렴하고 신선한 밥상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것만큼은 꼭 지키려 한다. 가족 단위가 많고 인근주민과 서울예대 학생 외에도 각종 모임을 위해 멀리서 오는 단골손님이 많다. 특히 이삿짐 업체 직원들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든든하다며 자주 찾는다."며 "맛있게 잘 먹었다는 손님들의 인사 한마디에 힘이 나고, 손님들이 직접 착한가게라고 인정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긴다."고 했다. 훈이네를 종종 찾는다는 한 손님은 "질리지 않는 반찬과 한 가족처럼 편안해 보이는 직원들의 친절함이 가장 큰 장점"

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김지훈 사장은 식당을 운영하는 중에도 봉사자들과 함께 매달 경로당을 찾아 사랑의 짜장 나눔 봉사도 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쓰며, 한 번에 500여 분 정도의 양을 준비한다. 훈이네 점심특선은 오후 3시까지며 가격은 6천 원이다. 설날과 추석 명절 중 이틀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 문 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42)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훈이네

주소 :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로 140
전화 : 031-414-7040

청학침냉면

머리끝까지 느껴지는 시원함



청학 침 냉면은 한양대 앞 로터리 건물 2층에서 14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창가에 자리잡은 작은 화분들이 상큼한 봄 분위기를 내는 홀은 워낙 넓어서 단체 손님 회식 장소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진한 맛의 얼음육수가 머리끝까지 시원함을 전해주는 물냉면과 고춧가루를 아주 곱게 갈아서 만든 비빔양념의 매콤한 감칠맛이 제대로 살아 있는 비빔냉면의 맛은 정말 깔끔하다. 물냉, 비냉은 5천원, 만두는 3천원으로 함께 먹는 맛이 일품이다.

주소 : 상록구 한양대학로 32(2층)
전화 : 031-418-2255~6
정기휴일 : 명절, 비오면 종종 쉬

한승푸드

매일 먹는 음식이 보약



입구에 '행복한 점심'이라고 적힌 안내판에는 오늘 점심과 저녁에 나올 음식과 찬들이 정리되어 있다. 한승의 뷔페는 반찬이 수 십 가지는 아니지만 매 식사 때마다 메뉴가 바뀌고 저렴한 가격(5천원)에 원하는 만큼 양껏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매일 바뀌는 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 신선한 식재료가 들어온다. '매일 먹는 음식이 보약'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한승푸드는 보통의 식당과 달리 식품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가게로 30명 이상이면 안산 전 지역에 배송이 가능하다.

주소 : 단원구 원포공원1로 35 119호
전화 : 031-484-8871 / 정기휴일 : 일요일, 공휴일

예술세탁

솜씨와 마음씨가 예술



예술세탁소는 예술프자라자 1층에 위치해 영업한 지 어느덧 10년이다. 마법의 손길처럼 옷을 손질하는 모습이 얼마나 빠르고 꼼꼼한지 주인장의 솜씨가 한마디로 예술이다. '착한가격으로 고객과 훈훈한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예술세탁소는 한마음 나눔 복지회 회원으로 사회 무관심과 사각지대에 계시는 차상위 어르신께 사랑의 온정과 마음을 나누고 있으니 그 마음 또한 진짜 예술이다. 드라이 하의 3천원, 드라이 양복 한 벌 7천원이다.

주소 : 상록구 화랑로 501, 112호
전화 : 031-480-2001 / 정기휴일 : 매주 일요일

단원치매안심센터, 예방부터 쉼터까지 통합서비스

“치매, 조기 검진하면 노년 삶의 질 달라진다”



어떤 병이나 마찬가지로 치매는 예방과 조기검진이 더욱 중요하다. 치매 발병 위험 요인들을 조절하면 치매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일찍 발견해 대비하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약 76만 명으로 추산되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숫자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되는 첫해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필수코스가 됐다.

지난 3월 단원보건소 3층에 문을 연 단원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과 검진,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쉼터 운영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1차 검사를 통해 인지저하 대상자를 선별한 후, 2차에서 신경심리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통해 3차 감별대상자를 선정한다. 비용은 무료이나,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감별검사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부담한다. 치매로 확정될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이 지원되며, 배회 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인식표도 발급된다.

쉼터 프로그램으로 경증 치매 환자들의 인지 재활훈련을 돕는 ‘두뇌팡팡 기억팡팡’도 운영한다. 현실인식, 인지훈련·자극치료, 회상치료 등의 뇌 운동 및 작업치료, 원예·음악·미술·운동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

한다. 주 5일 동안 1일 3시간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3개월 동안 운영되며, 1회 연장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기억활짝’ 치매예방교실은 체조, 음악, 작업치료를 통해 인지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1회 90분 총 12회 진행되며, 경도 인지장애 및 인지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기억활짝’ 인지강화교실도 마련됐다.

치매 환자 가족들도 돌본다. 가족 상담과 교육, 자조모임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정보와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며 가족 카페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단원치매안심센터 조금옥 주무관은 “치매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약을 먹게 되면 상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노년기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는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모두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주기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단원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정원 마감일 될 때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 문 의 : 단원치매안심센터(031-481-6541~43)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상록수 · 단원보건소 초등 돌봄 교실

아동 비만 예방...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습관 만들어요”



상록수 · 단원보건소는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통한 비만 예방을 위해 초등 돌봄 교실 아동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이하 ‘돌봄 놀이터’)을 운영한다.

‘돌봄 놀이터’는 지역 내 8개교 19학급, 돌봄 교실 아동 400명(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보건소의 전문 인력인 영양사 5명과 운동처방사 4명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영양·식생활 체험교육은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 먹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

도록 미각 체험과 놀이 활동으로 진행된다. 방울토마토, 파인애플, 포도 등 신선한 과일들을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고 먹는 등 오감을 통해 느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 담당자는 “과일 섭취가 줄고 있는 요즘, 과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천연의 맛과 향으로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전통놀이, 협동놀이, 잡가놀이, 공놀이 등 놀이 체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서승현 군(신길초 1년)은 “토마토를 좋아하는데 오늘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운동시간에는 팀을 나눠서 접시뒤집기 게임을 했는데 빨리 움직여야 이길 수 있거든요. 운동을 하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비만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동비만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아동은 성인에 비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어려우므로 보건소와 학교, 학부모가 함께 관리하는 생활터 중심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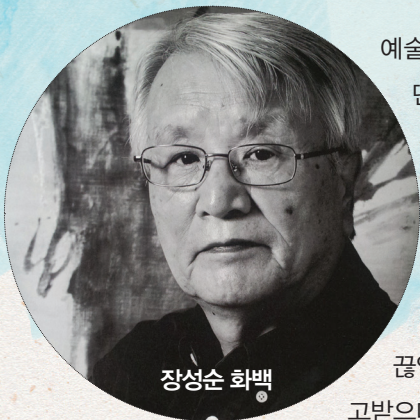
◇ 문 의 :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031-481-5925),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031-481-3471)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미술의 도시 안산 ③

안산은 조선후기 천재화가 단원 김홍도 선생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미술의 도시이다.
안산은 예로부터 물 좋고, 산 좋아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예술가들이 많은 예향의 도시였다.
단원미술관, 경기도미술관을 비롯해 다양한 미술 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는 미술의 도시 안산을 소개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 ‘장성순’

보이는 것 그 너머를 표현하는 ‘추상화’에 평생 바쳐 작품 200여 점 안산시 기증 ... 안산의 화가로 사랑받길



장성순 화백

예술가와 도시는 어떤 관계일까? 예술가에게 영감과 재능을 심어주는 여신 뮤즈처럼 도시라는 공간도 예술가와 끊임없이 기운을 주고받으며 창작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도시는 예술가, 특히 화가에게 샘솟는 영감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뮤즈다. 고흐를 떠올리면 뜨거운 태양빛이 쏟아지는 프랑스 아를지역이 떠오르고 작곡가 윤이상과 통영의 바닷가 풍경이 함께 생각나듯이 언젠가 ‘추상화가 장성순’ 하면 ‘안산’을 떠올릴 날이 오지 않을까? 1990년 안산으로 이사와 작업실을 열고 마치 성실한 노동자처럼 매일매일 작품을 그려온 장성순 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추상화가 장성순 화백을 소개한다.

남종화가의 거목 허백련에게 그림 배워

함경남도 함흥출신인 장성순 화백은 어릴 때 심한 중이염을 앓고 왼쪽 귀 청력을 잃었다. 함흥의 갑부집 아들로 태어난 그는 서화를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에 당시 유명한 시서 화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2년 반 집에서 묵었던 남종화의 대가 허백련 선생과의 만남은 그가 화가의 길을 걷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 화백은 한 대담집에서 “허 선생님과 매일 같이 지내다 그림을 좋아하게 됐어요. 허 선생님이 가끔 나에게 붓을 쥐어 주어 그리게 하면서 가르쳐주요. 그림에 눈을 뜬 건 그때였죠”라고 회고했다.

하지만 유년의 행복했던 추억은 오래가지 못했다. 1927년 격동의 세월에 태어난 화백의 삶이 평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 세 차례의 전쟁을 마주해야만 했던 역사적 현실과 청력을 잃어가는 개인적 시련은 그를 내성적이며 사색이 깊은 청년으로 자라게 했다. 우리나라 5대 고보 중 하나인 함남중학교(함흥고보) 졸업 후 맞이한 해방. 해방은 장 화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넉넉했던 살림은 오히려 죄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감옥살이를 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후 남쪽으로 도망쳐왔다.

우리나라 추상 미술의 대표 주자로 성장

감수성 예민하고 내성적이었던 장 화백에게 미술은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본격적인 그림 공부를 위해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으나 장애

인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당시에는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가 없었다. 입학한지 1년 만에 장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학처리 된 후 그림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미술 대가들을 찾아다니며 덧생과 유화를 공부했다. 본격적인 미술공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추상화가 그룹의 리더로 성장했다.

1956년 우리나라에 최초의 추상화가들의 모임인 ‘현대미협’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장 화백이었다. 당시 젊은 화가들끼리 모여 ‘현대미협’을 창립하고 ‘현대미협전’을 열었는데 이 전시는 우리나라 미술화단에 추상화를 소개한 대단히 획기적인 전시회로 평가 받고 있다. 현대미협을 창립한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장 화백은 “사실적인 그림에서 조금 벗어나면 무조건 국선에서 낙선 하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거창하게 추상화를 하자고 해서 만든

“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다. 가족을 위해 가장의 역할도 충실히 하셨지만 화가로서의 삶도 그랬다. 꾸준히 개인전을 여시고 매년 단체전에 출품을 하시는 등 작가로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다. 작품을 하실 때는 런닝 차림으로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캔버스와 씨름을 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

게 아니라 기존화단에 대한 대항하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젊은 작가들의 도전은 당시 화단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성순이라는 화가의 존재를 알린 계기가 됐다. 장 화백은 196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파리비엔날레(1961년) 도쿄비엔날레(1967년)에 작품을 출품했다. 당시 그가 출품한 작품은 모두 앵포르멜풍 작품으로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을 받았다.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는 미술 ‘추상’

그림을 좋아하고 감수성 예민하던 청년이 3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성장하고 또 귀까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가는 그림을 추구하는 것



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았을까?

미술 평론가들은 장성순이 작업의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상작품을 고수하여 나아감으로써 전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의지를 시각화한다든지, 이성과 논리보다는 직관과 감각에서 출발하여 순수 추상의 결정체에도달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돌의 거친 표면을 보면 내 나뭇대로의 이미지가 보이고 그걸 그리고 싶었다”는 장 화백. 한 평론가는 그의 그림에 대해 “외곽의 프레임이 마치 그리스시대의 석비(石碑)를 연상시키면서 장성순이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왔던 돌이라는 오브제가 새로운 형식으로 등장한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작품 207점 안산시에 기증

장성순 화백은 1990년 안산으로 이사와 30년 가까이 안산에 살고 있다. 장 화백의 딸 지영 씨는 아버지이며 존경하는 화가인 장성순 화백의 일대기를 정리하고 재조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녀가 홍익대학교에서 예술기획학을 전공한 것도 아버지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추상화를 그려온 ‘장성순 화백’을 주제로 논문도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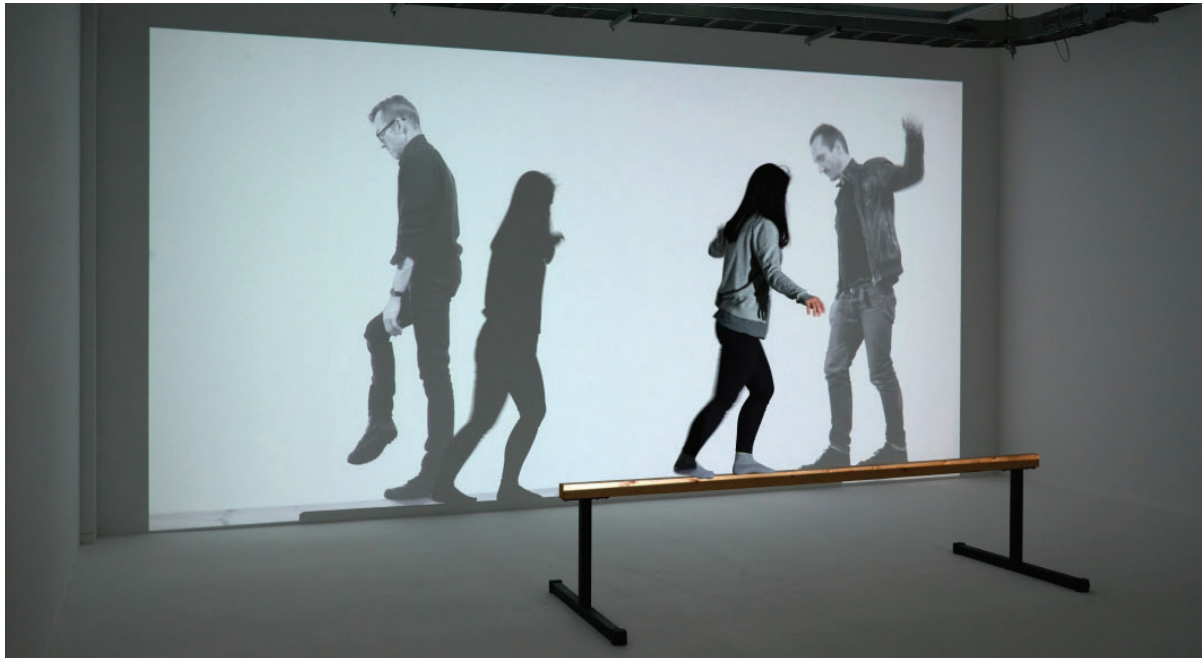
장지영씨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성실한 노동자다.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다. 가족을 위해 가장의 역할도 충실히 하셨지만 화가로서의 삶도 그랬다. 꾸준히 개인전을 여시고 매년 단체전에 출품을 하시는 등 작가로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다. 작품을 하실 때는 런닝 차림으로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캔버스와 씨름을 하셨던 것이 기억난다”는 장지영 씨.

장 화백은 지난 2017년 작품 207점을 안산시에 기증했다. 유일한 상속자인 지영 씨의 역할이 컸다.

장지영씨는 “아버지는 늘 안산이라는 도시를 참 좋아하셨어요. 안산에 온 후 작품이 더 잘 그려진다고. 이 도시와 잘 맞는 것 같다시면서 이사하신 걸 참 잘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고잔동에 있던 아뜰리에를 정리하니 아버지가 평생 그린 작품이 한 500여점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을 기증한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앞으로 아버지의 작품이 안산시민들에게 사랑받도록 안산시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창작센터 신규 입주작가 전시회 개최

〈공인되지 않은 담론자들〉 예술에 대한 사회통념적 해석 ‘저항’



경기창작센터에 새로 입주하는 20명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 ‘공인되지 않은 담론자들’이 6월 24일까지 센터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의 제목인 ‘공인되지 않은 담론자들’은 예술가가 예술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근원적 개별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회 통념적인 해석들에 저항하고 기존의 지식이나 관념 안에 자리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균열과 간극들로 공통되지 않는 자리를 만들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전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예술가들은 타자와의 내밀한 차이를 잃어가

는 것을 거부하고 개개인의 특이성과 무한히 분별 되는 가능성을 놓지 않으려고 기꺼이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 삼는다.”라며 이번 전시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가지는 창조의 고충을 대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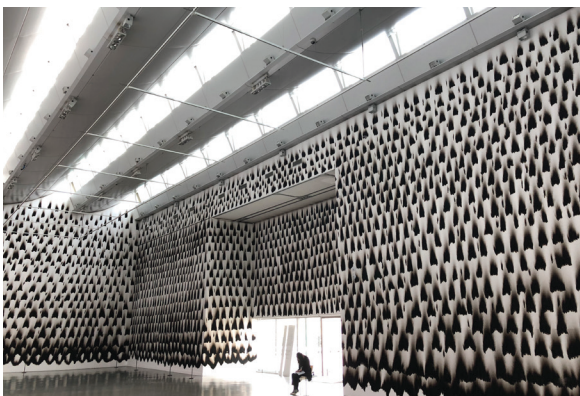
그러면서 “역동적인 변화들이 끊임없이 교차 발생하는 동시대 예술 환경에서 자신만의 소통방식과 예술적 실험들을 묵묵히 펼쳐온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유의미한 질문들을 던진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예술가들은 입주하는 동안에 다양한 전시와 강연, 워크숍 등을 함께 하면서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는 동시에 각각의 역량을 개성 있게 키워나갈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창작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지던시(예술가들의 예술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곳)로서 그동안 국제적 감각이 스며든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분야마다 더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예술가들에게 지원하고자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여러 방면의 시대적 쟁점들을 고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표현한 예술가들을 선정하였다.

◇ 문 의 : 경기창작센터(032-890-4820)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프랑스 작가들의 창조적인 실험, 벽화로 만나다

경기도미술관 ‘그림이 된 벽’ 전시, 오는 6월 17일까지 열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높이 9m와 가로 50m의 벽에 자유롭게 그려진 이미지는 시선을 압도한다. 미술관 공간을 캔버스 삼아 그려진 작품들은 전에 본 적 없는 크기와 이미지로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시야의 범위를 넘어선 그림들 사이를 거닐 땐 새로운 시지각적 경험도 맛보게 된다. 그림이 된 벽이자 벽이 그림이 된 작품들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볼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든 미술관에서 느끼는 특별한 경험이다.

경기도미술관에서 오는 6월 17일까지 선보이는 ‘그림이 된 벽’은 국내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프랑스 현대미술가 8인이 전시장에서 직접 제작한 벽화를 볼 수 있는 전시다. 참여 작가들은 그동안 작품의 배경으로만 존재했던 벽에 건축적 규모의 드로잉을 하거나 굵어 파내고, 불로 그을리는 등 회화를 해체하는 창조적인 실험을 보여준다. 이런 시도는

1970년대 전후 프랑스의 전위적인 예술운동 ‘쉬포르 쉬르 파스(supports surfaces)*’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캔버스의 틀을 벗어나 회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물음을 던진다. 불을 이용해 벽면에 그을음을 남겨 추상적인 패턴을 만든 크리스티앙 자카르의 ‘그을음의 악보’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다. 연소된 흔적과 그을음으로 가득 채워진 벽면은 회화의 전통적인 재료 없이 오직 불과 연소성 젤만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수백 개가 넘는 불의 연소 과정 흔적이 그대로 나타난 작품은 생의 명멸을 환기하며 송고한 공간을 창출한다.

클레르 콜랭-콜랭은 오래된 유화의 갈라진 틈을 모티브로 삼아 끌개로 벽면에 균열을 내는 작업을 했다. 파내어진 벽면의 틈에는 지층처럼 벽의 기억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작품의 선들은 그림이 되어가는 시간을 함축한다. ‘무제’는 반복된 작업 속에서 마치 주름이 생긴 피부와 같이 시간의 흔적을 축적한 벽화가 됐다.

벽면 전체를 흑연 드로잉으로 채운 크리스티앙 로피탈의 ‘마음의 일종-상상’은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실재하지 않는 상상 속 이미지들이 구름처럼 부유하는 환영을 일으킨다. 기이한 식물이나 유령, 외계 생명체 같은 이미지들이 익살스럽거나 그로테스크하게 서로 얹히고 이어져 있는 모습은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올리비에 노틀레의 ‘단단한 벽, 달콤한 집’은 밝은 노랑 색면과 검정 드로잉으로 벽면 곳곳에서 관람객들의 능동적인 상상을 자극한다. 관람객들은 검정색 형상을 상상의 단초로 삼아 스토리를 만들거나 기억을 꼬집어내 생각을 이어나가게 된다. 작가는 마치 솓과 솓 사이를 편집하는 영화감독처럼 벽면들과 공간을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으로 활용해 관람객들을 놀이의 경험에 참여시킨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 참여 작가들은 국제 비엔날레에 초청되거나 프랑스 현대미술사에 기록될 만큼 명성 있는 작가들”이라며, “사진으로는 그 감흥을 충분히 느낄 수 없으니 꼭 전시장을 방문해 회화의 실험성을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장 안에는 관람객들이 전시 작품들과 연계된 조형 활동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미니어처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같은 모양의 자석판, 벨크로, 라인테이프를 벽에 선처럼 잇거나 도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마음에 담아둔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그려보며 작품과 연계된 벽화 활동을 자유롭게 경험해볼 수 있다.

*쉬포르 쉬르파스: ‘바탕’을 뜻하는 쉬포르(Supports)와 ‘표면’을 의미하는 쉬르파스(Surface)의 합성어인 이 예술운동은 회화의 바탕을 이루는 물질과 표면 이미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탐구했다.

◇ 문 의 :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http://gmoma.ggcf.kr>)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시화호 생명지킴이 '도시숲 시민교육'

도심 속 마을 숲에서 생명을 바라보다. “환경보전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예의다”

안산시는 마을 숲과 도심 녹지에서 생태자원의 소중함과 건강한 숲에 대한 인식을 증진 시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2018년 도시숲 시민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시숲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시화호생명지킴이는 시민들에게 마을 숲의 생태적 기능과 생태자원을 알아보고, 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생활환경교육으로 자연 환경 보전·보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안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등 우리가 보호해야 할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하면서 환경보호와 서식지 보전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도시숲 시민교육’으로 지난 4월과 5월에는 마을 산의 상태를 알아보는 ‘슬기로운 생태교실’을 진행했으며, 5월부터 7월까지 화요일마다 수암봉, 마산, 성태산, 태봉산(6/5), 휴암산(6/19), 지봉재산(7/10), 치맛산(7/17)의 생태계를 알아보며, 안산 녹지축의 기능과 역할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도시숲 시민탐사대’가 진행된다.

‘도시숲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유치원과 연계한 ‘애벌레 산책’,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환경드림팀’, 중장년 대상 ‘안산나들길’, 온가족이 생태적 상상력을 기르는 ‘가족생태탐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환경체험과 자원봉사를 겸한 ‘하천사랑지킴이’에 참여해 하천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갈대습지공원에서는 여섯 가족, 18명이 참여한 ‘가족생태탐사단’이 진행됐다. 새둥지 박스를 만들어 꾸미고 나무에 달면서 아이들은 참새들처럼 재잘거렸다. 한미영 해설사는 “딱따구리가 뚫어놓은 구멍이나 나무의 웅이를 둥지로 이용하는 박새류와 참새 등 작은 새들은 도심 속에서 둥지 틀 곳이 없어 전봇대 구멍 등 위험한 곳에서 알을 품는다.”며 도심 숲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규(성안초1)와 현규(6세) 두 아들과 참여한 김희석 씨는 “비가 그치고 청량한 날 가족과 함께 자연에서 뛰어놀고 새한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했다. 두 달에 한 번은 갈대습지공원에 가는데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만든 새집을 자주 들여다보게 될 것 같다”며 남은 다섯 번의 프로그램에도 기대를 내보였다.

시화호생명지킴이 김경애 사무국장은 “안산시는 78%로 녹지율이 높은 편이다. 안산시에 사는 시민들이 숲 탐사 통해 그냥 지나치던 꽃잎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기쁨을 맛보기 바란다”며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 숲에서 소중한 생물들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오는 7월 21일에는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생태 이야기 및 체험과 작은 숲속투어가 있는 축제 ‘도시숲 한마당’이 열린다. 숲속 축제에는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 문 의 : 시화호생명지킴이(031-401-5601)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일동 성태산

‘성태산’에서 따뜻한 생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웃들

주민들이 마을 숲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상록구 일동 성태산을 찾았다. 일동 전체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성태산은 160m 높이에 능선이 완만하며, 정제초등학교 쪽으로는 수암봉과 연결되고, 반월저수지로도 이어져 있다.

떡갈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등이 울창해 고즈넉한 숲길을 찾는 이들이 안산대학교 뒤편 청룡사에서 시작해 수암봉으로 등산코스를 잡거나 갈림길에서 임도로 내려가 반월저수지로 향하기도 한다. 정상 부근에 이르면 백제 땅이었다가 고구려, 마지막엔 신라 땅이었던 안산 유일의 삼국시대 유적지인 성태산성의 성벽 흔적을 볼 수 있다. 성태산성은 삼국시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교통 요지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인접해 접전을 치르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구 중앙병원) 옆 산길을 10분가량 오르면 만나게 되는 도롱구룡 연못에 북방산 개구리와 도롱뇽이 알을 낳고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숲과 연못을 조성해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는 한편, 안골운동장에서부터 점سم체육공원까지 8km에 이르

안산 갈대습지 체험 프로그램

안산갈대습지를 가다 도심 속 보호 생물들의 안식처

미세먼지도 없이 화창했던 5월의 주말, 안산갈대습지를 방문한 가족들과 학생들은 파란 하늘과 실록을 만끽했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예방을 위해 임시 휴장에 들어갔던 안산갈대습지가 5월 1일 재개장하면서 많은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안산갈대습지는 강변을 따라 넓게 펼쳐진 갈대숲도 장관이지만 다양한 보호생물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많은 수의 멸종위기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도 손꼽히는 곳이다.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도 좋지만,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갈대습지를 체험하면 진면목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미리 견학 신청을 할 경우 전문해설사와 함께 갈대습지를 돌며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5월 26일 토요일 오후, 서울 신도림고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안산갈대습지로 견학을 왔다. 학생들은 시화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안산갈대습지의 역사 이야기를 듣고, 최현미 해설사의 인도로 습지를 체험했다. 관찰 데크를 따라서 인공 섬과 물고기길인 어도(魚道),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조류관찰대로 이어지는 코스는 자연 속에서 새들의 지저귀는 배경음악 삼아 걷기 좋은 산책로였다. 향수 재료로 사용된다는 해당화 향기를 직접 맡아 보기도 하고, 단단한 나무껍질을 손으로 만져보며 자연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고잔동 마을정원

마을에서 만들고 우리 손으로 지켜요~ '마을정원지킴이 봉사단'

길게만 느껴지던 겨울을 뒤로하고 어느새 다가온 봄. 따뜻한 봄볕에 뽀짝뽀짝 새싹이 돋아난다. 지난해 마을 정원을 수놓던 꽃들의 만개를 기대하며 어린 손길들이 분주히 흙을 고르고 미처 겨울을 나지 못한 식물의 빈자리에 새로운 꽃모종을 정성껏 심는다. 흙을 다독이는 아이들의 얼굴위로 뿌듯함의 미소가 흐른다. 지난해 화랑유원지와 고잔동 일대에서 열린 '2017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우리 마을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생소했던 정원문화를 알게 되었고 주민들은 내 집 안, 내 집 앞뿐 아니라 우리 빌라, 우리 마을에 조성된 정원에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꼬마정원사, 마을정원사 등 정원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비록 내 화단은 아니지만 내 손으로 심고 가꾼 마을정원이 오래도록 지속돼 마을의 쉼터가 되고 주민들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한 바람이 모여져 꼬마정원사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엄마들은 '마을정원 지킴이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소생길(고잔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단원고 앞까지 이어진 골목길) 마을 정원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다.

'마을정원 지킴이 봉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마을정원의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뽑았다. 지난 1월과 2월 귀가 빨갛게 얼어붙는 추운 날씨에도 아이들과 엄마들이 소생길로 모여 꽃피는 봄날을 기다리며 나뭇가지를 정리했다.

올해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로서 도심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자연을 느끼고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지원해 선정됐다. 또한 (사)푸르네정원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꼬마정원사 교육에도 참여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마을정원 지킴이 봉사단'은 지난 4월 셋째주 토요일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금으로 구입한 꽃모종 100여개를 소생길 마을정원에 옮겨 심었다. 아이들은 다양한 꽃 화분을 받아들고 마치 큰 선물이라도 받은 양 즐거워했다. 엄마들의 지도에 따라 흙을 파고 꽃을 조심조심 옮겨 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마을정원이 어떻게 지속되어갈지,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된다.

송현, 승희 엄마 강선옥 씨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갈 길을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화단의 꽃에 관심을 가져요" 윤성, 우성 엄마 김지윤 씨는 "스스로 알아서 화분에 물을 줘요. 자기 주변에도 관심을 갖고 둘러봐요"라고 아이의 변화에 대해 말한다. 우리 마을정원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만큼 반가운 변화이다.

남윤남 (사)푸르네 정원문화센터 정원사는 "아이들이 꽃을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한다. 부모와 함께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꽃으로 부모와 아이가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마을정원 가꾸기의 의미를 설명했다. '마을정원 지킴이 봉사단'은 고잔동에 정원이 남아 있는 동안은 정원을 돌보고 그 속에서 커가는 아이들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 박미영 고잔동 문화마을신문 편집위원

는 둘레길을 가꾸고 있다. 산을 내려오다 약수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루페(lupe, 확대경)를 들고 채집해 온 유충과 성충을 들여다보며 생태안내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곤충도감을 펼쳐놓고 다리 형태, 날개 수, 더듬이를 살피며 '종속과목강문계' 순서로 벌레들의 이름을 찾고 있었다. 일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생태안내자 양성과정을 마련, 올해 2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나무와 풀, 새, 곤충, 양서류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이론을 공부한 뒤 야외 수업으로 이어가는 10주 과정이다.

김남미 해설사는 "전문적 영역인 자연환경해설사 과정을 마을에서 2년째 지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 과정을 마친 후 심화과정으로 연결해 생태나눔협동조합을 꾸리려 하고, 아이들과 어른 등 연령별로 정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홀리기, 검은등빠꾸기, 할매새사촌 등 새의 밀도가 높고, 지표종인 도롱뇽이 살고 있는 생태산은 생태가 매우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2기 반장인 윤미선 씨는 "전에는 잘 구별하지 못했던 새 소리가 이제야 들립니다. 공동육아를 하는 물까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앞으로 생태산을 우리 동네 주민과 연결해주는 생태안내자로 활동하고 싶어요."라며 웃었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해설사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갈대습지에 서식하며 지나 다니던 흔적을 보여주었고, 수달의 습성을 설명해주기도 했다. 조류관찰대에서는 민물가마우지가 날개를 말리는 모습과 왜가리들이 오후 한때의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낮은 나무의 풀숲에서는 흔히 뱀새라고 불리는 붉은머리오목눈이의 둥지와 알도 볼 수 있었다. 행운처럼 입을 벌리고 어미 뱀새를 기다리고 있는 아기 새 둥지를 관찰할 때는 생명의 경이로움에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왔다. 이날 학생들을 인솔한 정영일 교사는 "아이들이 평소 만나기 힘든 자연을 접해 정말 좋고, 생태 관련된 내용을 알아갈 수 있어서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개장과 함께 신설된 주말 프로그램 '안산갈대습지 9경하차'도 인기였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환경생태관 2층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계절에 맞는 생태놀이와 체험으로 꾸러졌다. 현장에서 재료비 2천 원을 내면 천연비누, 씨앗목걸이, 토피어리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고, 갈대습지의 다양한 명소를 돌아볼 수도 있다.

6월에는 갈대습지를 돌며 창포물 향기 맡기, 유해식물 제거하기 활동도 하고, 모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도 하게 된다. 안산환경재단 신진옥 차장은 "갈대습지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많다 보니 대부분 반나절이면 마감된다"며, "전문해설사들의 흥미로운 생태설명과 함께 갈대습지를 200퍼센트 즐기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문 의 : 안산갈대습지 홈페이지(wetland.iansan.net), 안산갈대습지 생태관(031-481-3810)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시 출산장려정책		출산장려지원	
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용	담당부서
출산장려금 지원	2018.1.1.이후 출산일기준 관내 6개월 이상거주한 출산가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1회지급. 단, 넷째아는 매년 2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481-2604)
출산축하용품 축하카드 (2018년 6월 시행)	2018.1.1.이후 출산일기준 관내 거주하는 출산가정	축하용품(5종) 1박스 및 축하카드 ※지원방법 - 출산직후 관내병원 방문전달(사전 동의자) 출생신고시 동행정복지센터 전달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481-2604)
아이돌봄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만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 아이돌봄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가구 - 정부 지원금 보조(일부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 가구 -본인부담 100% (https://idolbom.go.kr) 참조 *신청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481-2604)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	관내 5년 이상 거주 - 넷째자녀 이상 고등학생 - 다섯째자녀 이상 대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재학중 학자금 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481-2606)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	관내 3년 이상 거주 - 셋째자녀 이상 중·고등학교 입학시	신입생 교복비 지원(30만원)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다자녀우대카드)	관내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중 만18세 이하 자녀 및 부모	주차장·체육시설·수영장(안산도시공사) 여성비전센터·주민자치센터 등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카드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2018년 6월 1일 시행)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관내 거주하는 중위소득72% 이하인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가정 ※ 지원규모 : 연 60가정	1가구당 월 2회 가사서비스 (청소, 세탁, 설거지) - 월~금 09:00~18:00 중 4시간(오전/오후), 회당 본인부담금 5,000원 ※ 신청 상담문의 :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495-5844)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481-2264)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관내 거주하는 자(부모)의 셋째 이상인 자녀 ※거주기간 요건 없음	월 3만원(만5세까지)	구청 주민복지과 (상록 481-5212) (단원 481-6212)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다자녀우대카드)	두 자녀이상 가정 만5세미만 자녀	공공시설물, 미술관, 도립공원, 학원 등 각종 할인혜택 *신청 : 농협(가족관계등록부 지참)	농협안산시사 (401-0640)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세자녀 모두 만18세미만)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취득세 전액 감면 -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481-3544)
수도요금 감면	관내거주 세자녀 이상 가구	단독주택/개별검침 가구 - 누진요금 적용시 1단계요금 적용 공동주택/다가구/개별 미검침가구 - 누진요금 적용시 800원 정액감면	상하수도사업소 (481-3678)

산전 산후 출산지원			
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용	담당부서
난임부부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가구	· 체외수정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 -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최대 4회 지원(신선배아)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팀 (481-5974) 단원보건소 모자건강팀 (481-2554)
임산부지원사업	관내 임산부	· 임신초기(12주이내) 6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지급 · 임신16주~분만 전 -건강관리 및 철분제 지급 · 임신24주~28주 -임신성당뇨 및 빈혈검사	
주·야간 출산준비교실운영 태교미술교실 운영	등록 임산부 중 16주이상	- 요가, 모유수유, 태교법 등, 아기인형 만들기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산시 거주자(주민등록)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소득기준에 따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지원 (일부 본인부담금 있음) - 산모 영양관리(식사), 유방관리 -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세탁물관리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지원	등본상 주소가 안산시민이며 결혼예정 및 첫 임신 전 부부	혈액검사 9종, 뇨검사, 흉부×-선 촬영	
전통유축기지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산모	전통유축기 1개월 무료대여	
영유아 건강관리	관내 영유아	BCG, B형간염, 뇌수막염, DPT, 소아마비, 폐렴구균 수두, MMR, 일본뇌염, A형간염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기준중위소득 72%이하 가정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쿠폰 지원, 난청확진검사비 (ABR)중 본인 부담금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만 66개월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출산부, 수유부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가정	체계적인 영양교육, 보충영양식품 제공, 정기적 영양상태 평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2세 미만의 가구(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64,000원 지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481-220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5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및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자	비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금지원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	장애등급 1급~3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4급~6급 : 70만원 이내 ※타법령에 의한 중복지원자는 차액을 지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1~6급)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지원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저소득층 해산비용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여성에 60만원 지원	구청 주민복지과 (상록 481-5212) (단원 481-6212)

보육지원

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용	담당부서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지원금액	시청 보육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481-2304) 정부미지원어린이집 (481-3323) 양육수당 (481-3325)
		연령	
		보육료(원)	
		종일반	
		맞춤반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만3~5세 아동	정부지원금액 : 220,000원(월/인)	
장애아 무상 보육료지원	취학 전 만 12세 이하 장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정부지원금액 : 449,000원 (월/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가정·협동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 중 경기도에 주소를 둔 아동	실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간 차액 지원금액 : 60,000원~85,000원(월/인)	
가정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유치원·종일형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취학 전 (만84개월 미만) 영유아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포함)이내 신청하는 경우만 출생일로 소급지원	지원금액	
		연령 (개월)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000원
		12~23	150,000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018년 7월 시행)	• 지원자격 : 카드발급 명의자(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동(만3세~만5세)이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록 외국인 가정 • 지원기간 : 체류 기간 동안 지원 (카드발급 명의자와 아동이 모두 체류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원금액 : 월 220,000원(월/인) 지원방법: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방법 : 보호자가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24~35	200,000원
		36~47	
		48~83	100,000원

공공기관 출산지원

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용	담당부서
전기요금 감면	3자녀이상 또는 5인가족(대가족)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수 기준)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한국전력 (123(국번없이))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수 기준)	취사전용 420원 감면 취사·난방 (12월~3월) 6,000원 감면, (4월~11월) 1,650원 감면	삼천리도시가스 (1544-3002)
주택 및 전세자금 지원	3자녀이상 가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다자녀가정 국민임대주택 우선분양 -건설량의 10% 이내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금 지원	토지주택공사 (1600-1004)



독자코너 참여자 모집

나비잠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주안이는 우리 집에 막둥이로 찾아온 아이입니다. 4살, 3살 연년생 자매를 이제 조금 키우기 수월해졌나 싶을 때 찾아온 셋째. 그러나 첫째 둘째 육아 위주로 일상이 돌아가다 보니, 주안이는 태교도 많이 못 하고 음식도 잘 챙겨 먹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셋째라서 순한 건지 순한 기질인지 주안이는 힘든 것 전혀 없이 다가왔어요.

주안이는 태어나서도 배 속에 있을 때처럼 순하고 잘 웃는 밝은 아이예요. 신생아 때 다른 아기들 몇 번씩 깰 때도 밤잠도 푹 잘 자주고, 많이 울거나 보채지도 않고 방긋 방긋 잘 웃어주며 잔병치레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컸다고 누나들이 놀고 있으면 쫓아다니며 끼어서 같이 놀고, 누나들이 뭐라고 하면 자기도 지기 싫어서 되지도 않은 웅알이로 맞대꾸하며 성질도 낼 줄 안답니

다.^^ㅋ 세 아이를 돌보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세 아이가 함께 모여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행복감이 있어요. 한 아이 한 아이 다 각각의 개성과 성품, 예쁜 구석이 다르고 독특해서 이제는 한 명이라도 없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 아이 모두 다 낳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더 지혜롭고 사랑 가득한 늘 성장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엄마가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해준 우리 예쁜 아가들아, 엄마가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우리 더욱 행복하자.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숲속 마켓’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무대에서 가족과 함께해요



오는 10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말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자연과 예술이 함께 하는 ‘숲속 마켓’에 다녀왔다. 입구에서 숲속마켓 플래카드가 어릴 적 운동회에서 하늘에 휘날리던 만국기처럼 공중에서 펄럭이며 반겨준다. 음악이 흐르고 자유와 낭만이 느껴지는 숲속마켓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설렘이 시작된다. 시흥에서 온 젊은 엄마는 흥에 겨워 뛰어가는 두 아이를 쫓아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한다. 푸르른 하늘아래 펼쳐진 숲속마켓에서는 축제장에 온 듯 콧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행사 첫날인데도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어린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좋다. 여러 가족이 자연 속

에서 함께 뛰놀며 맛있는 음식도 먹는 모습이 신나 보인다. 푸드트럭 앞 기다란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여유로와 보인다. 숲속마켓은 안산의 청년기획자와 예술인들이 안산주민들과 함께 디자인하는 문화마켓이다. 서울의 밤도깨비 야시장이나 양평의 문호리 리버마켓 같은 문화마켓이 드디어 안산에도 생겼다. 숲속마켓이 열리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은 마치 도심 속에 숨겨져 있는 숲속에 들어온 듯 한 느낌을 주는 아늑한 장소다. 이곳에서 갖가지 생활용품과 공예품들을 쇼핑하고 푸드트럭에서 먹을거리도 즐기며 다양한 예술공연과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

귀걸이, 반지 등 액세서리 판매를 하는 정유경(선부동, 43세) 씨는 “한 달 전에 부스 신청을 해놓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첫날인데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고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앞으로 숲속마켓이 열릴 때마다 행사에 참여할 생각입니다.”라며 직접 만든 귀걸이를 선보였다.

SNS를 통해 숲속마켓을 알고 오게 됐다는 김명희(선부동, 43세)씨는 “와동에 사는 친구네 가족과 함께 왔는데 애들이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즐길 거리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거리도 가깝고 무척 좋네요.”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이번 숲속마켓은 안산문화재단과 문화예술협동조합 컬처75, 그리고 안산시흥맘모여라 카페가 공동으로 주관한 사업으로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 예술인들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운 것으로 민·관이 협력한 문화예술행사의 좋은 사례이다.

짧은 머리에 어울릴만한 귀걸이를 추천받아 착용해 보았다. 가격도 적당하고 예쁘다. 득템(?)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자연의 유익함을 되새겨 보았다.

◇ 문 의 : 안산문화재단 기획홍보부(031-481-4041)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2019 6 Ju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6월 8일, 9일에

먼저 하는 사전투표

쉽게 설명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기표소

POLLING BOOTH

투표함

쉬운투표안내영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른 동네(관외)에서

하는 사전투표 순서

1 신분증을 보여주면

가는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3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으세요.

4 투표용지 7장과

봉투를 받으세요.

세종시: 4장 / 제주도: 5장

5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으세요.

6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세요.

한 장에

한 번씩만

찍으세요.

투표지를

봉투에

넣으세요.

봉투 입구를

붙이세요.

시작

순서가 되면

들어가세요.

끝

안녕히 가세요.

*기표소: 투표도장을 찍는 곳

나는 공부한다, 고로 행복하다

안산시평생학습관, ‘온고지신 인문학’ 열어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한 ‘4차산업혁명시대’와 인문학의 관계에 대한 강연인 온고지신(溫故知新) 인문학’ 강좌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강좌는 4월에 ‘빅데이터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다음소프트 최재원 이사가 인간이 디지털에 남긴 흔적들이 모여 구성하는 빅데이터의 가치와 시대적인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사례를 들어 강연했다.

지난 5월 17일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지식생태학자 유명만 교수가 강연했다. 유 교수는 이 강연에서 자신을 ‘지식융점점’이라 소개한 후, “공부는 낯선 마주침으로 색다른 깨우침을 얻는 과

정이며, 습관으로 굳어진 생각의 고치를 깨부수는 망치질이자 즐거운 육체노동이어야 한다”며 “창의성이 중요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고정관념과 습관으로 굳어진 생각의 고치를 망치로 깨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공부는 당연한 것들에 호기심의 물음표를 던져 감동의 느낌표를 만나는 깨달음의 여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독특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독서와 사색을 바탕으로 부단한 실험과 도전을 하면서 자기만의 색다름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강연에 참여한 월피동 주민 송건호 씨는 “매년 이 강의를 빼놓지 않고 듣고 있는데, 오늘 강연은 무척 재밌고 신선했다”라며, “공부는 나와 상대가 하나가 되는 공감이며 행동하고 발로 뛰며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 무척 와 닿는다.”고 말했다.

한편, 6월 14일에는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를 주제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 문 의 : 안산시평생학습관(031-409-1877)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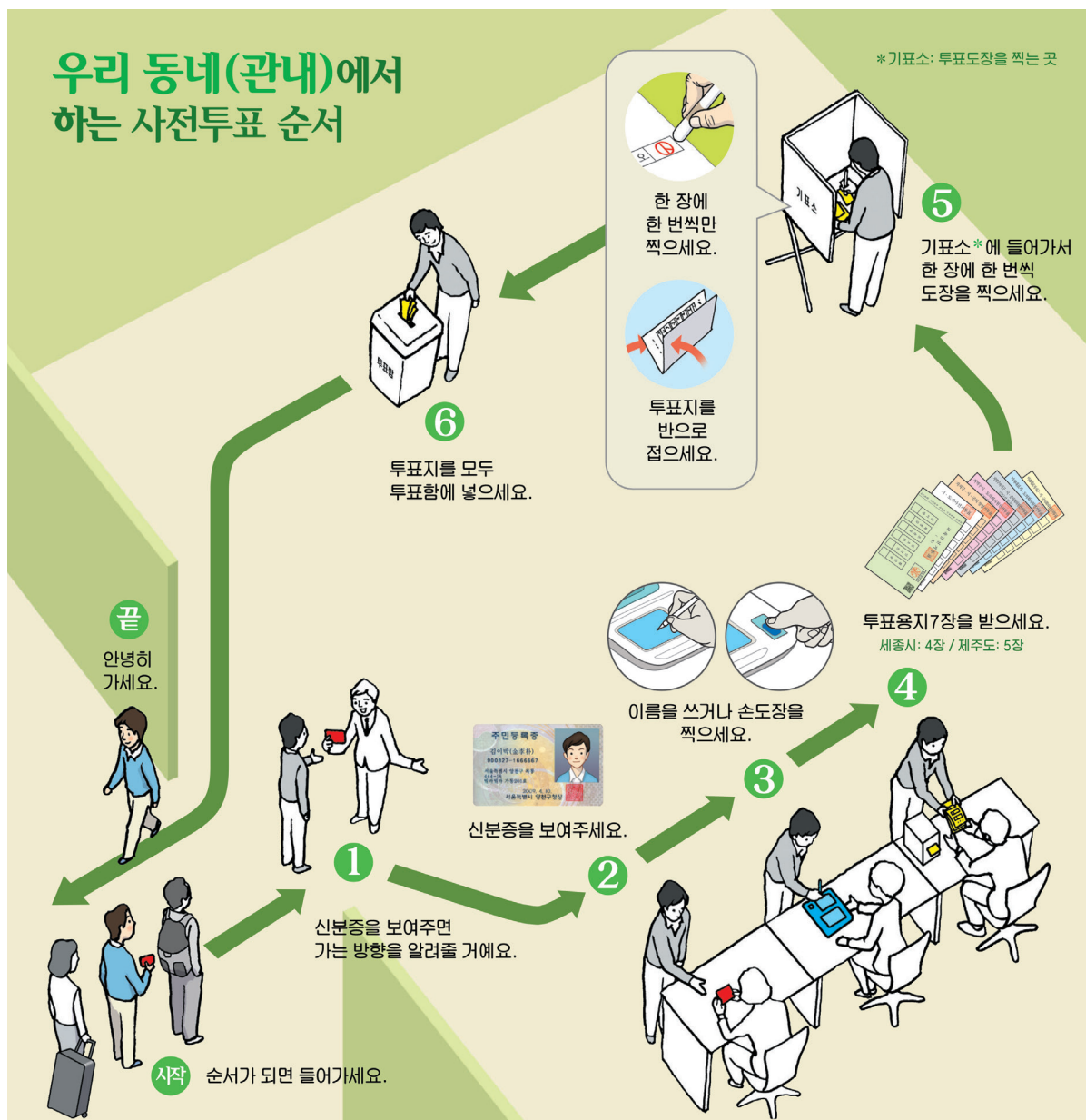
2018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아르바이트) 모집

안산시는 2018년 하계 방학기간 중 관내 거주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현장중심의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아르바이트) 211여명을 모집한다.

신청서 접수는 6월 4일 10시부터 6월 11일 17시까지 홈페이지(<http://www.iansan.net/>)에서 가능하며, 모집공고일(5.29) 현재 안산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대학, 해외 소재대학, 대학원생, 휴학생, 중퇴생 및 최근 1년 이내 동일사업 참여자(2017년 하계·시범, 2018년 동계·학기 중)는 제외된다. 공개(전산 랜덤)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며, 전공과 거주지 등을 바탕으로 근무지를 배치 받아 2018년 7월 2일부터 7월31일까지 시 산하 행정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우선 선발 대상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복지 급여 및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하여야 한다.

◇문 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 3279, 2610)



투표할 때 조심해야 할 것

- 투표하는 곳에 있는 투표용 도장으로 찍어야 합니다. 연필이나 볼펜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 투표용지(종이)에 투표도장을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투표도장을 여러번 찍으면 안됩니다.
- 투표도장을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투표도장을 네모칸 밖에 찍으면 안됩니다.
-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됩니다.

※본 투표: 5면 참조

전국 상록수 백일장 & 시 낭송회

전국에서 500여 명 참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상록수 최용신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백일장과 시 낭송회가 지난 5월 26일 노적봉 장미정원에서 열렸다. 올해 13회를 맞은 상록수백일장과 12회째인 시 낭송회는 전국에서 500여 명이 참가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시제 '의자, 주머니, 반려동물' 안에 풀어 놓았다.

김서울(초등5) 어린이는 즐거움, 호기심, 수줍음 등 여러 감정이 들어있는 속마음을 주머니로 표현한 시를 썼다. "백일장에 나와서 좋아하는 시를 쓰니까 즐거워요. '주머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시예요. 오늘은 즐거움이 가득 들어 있어요."라고 했다. 어머니 권경선(41세) 씨는 "딸이 백일장에 참여하려 하고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아

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안산시문인협회 김영숙 회장은 "글을 쓰면 생각하는 힘이 커지고 논리력이 늘어나는데, 글쓰기로 논리력과 상상력을 키운 초등학생들이 상록수 백일장과 시 낭송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며 "좋은 글들 많이 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록수백일장은 지역문인 8인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단의 예심 후 본심에서 운문·산문 별로 대상·장원·준장원·차상·차하·참방 각각1명과 장려상 3명씩을 뽑는다.

시 낭송회는 성인 포함 42명이 참가해 동시·자작시·기성시 중에서 1편을 암기해서 낭송하고 외부 교수 등 시 낭송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받았다. 시



선택과 이해, 발음, 감정표현, 태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각 1명씩 뽑고 장려상 1명을 뽑는다. 백일장과 시 낭송회 결과는 6월쯤에 나오고 시상식은 10월로 예정되었다. 장충렬 심사위원장은 "오늘 시 낭송 무대는 최상"이라며 "깊어 읽기에 조금 더 집중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고 말했다.

◇ 문 의 : 안산문인협회(031-405-5999)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성호 이익 선생의 지혜와 전통문화를 잇는 '성호문화제'가 5월 26~27일 이틀 동안 열렸다. 올해 스물두 번째 행사다. 성호문화제는 안산을 대표하는 지역문화제로서 안산의 역사적 인물인 성호 이익 선생의 정신과 학문적 업적을 기려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매년 열려왔다.

이번 행사는 전통 유교식 제사인 이익 선생 숭모제와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퀴즈를 통해 실학사상을 배우는 '제5회 실학 골든벨'이 안산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

실학과 전통문화의 만남, 제22회 성호문화제 '성료'

렸고, 이익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성호 사상 패넌전시회'는 삽화를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구성됐으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가하는 성호 백일장은 청소년 대상 성호사생대회와 함께 참가자들의 폭을 넓혔다.

'고무신 벗어 던지기' '코뚜레 던지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많은 관심을 끌었고, 옛 어머니들이 다리미 대신 사용했던 다듬이도 경험할 수 있었다.

김향숙(59세) 씨는 "어릴 적 할머니와 어머니의 다듬이질 소릴 듣고 자랐는데 이곳에서 마주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성호 선생의 이웃사랑 실학사상이 녹아있는 삼두(三豆)회 체험마당은 맷돌로 콩 갈아보기. 콩나물시루 물주기, 떡메 치기, 메주 만들기 등으로 되살아났다. 이익 선생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장 도움 되는 곡식이 콩"이라며 콩으로 만든 음식 세 가지인 콩죽, 콩나물, 된장을 차려놓고 친척들과

사회 모임을 가진 것이 토대가 됐다.

방년 약관의 젊은이들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성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길 것을 공표 하는 전통 성년식도 안산시행복예절관의 주관으로 성호문화제 안에서 치러졌다. 안산시립국악단과 안산경기민요단도 멋스런 공연으로 함께했고, 안산 고유의 민속놀이인 '둔배미 놀이'와 '와리 풍물놀이'도 시연됐으며, 젊은 전통예술인들의 공연 한마당은 줄타기, 사자춤 등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붙들었다.

김봉식 안산문화원장은 "그 옛날 이곳 점성리(현재의 부곡동)에서 살았던 선조들의 훌륭한 사상이 성호문화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며 "온고지신 자세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 문 의 : 안산문화원(031-415-0041)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7)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대부도에서 농촌체험 진행

체험학습을 위해 대부도 여정농원(단원구 대부남동 277-3)을 찾은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나서 "재밌어요" "딸기 열린 거 처음 봤어요" "딸기 색이 참 예뻐요" 등등 감탄사를 쏟아냈다.

여정농원 이태규(26세) 대표는 "이곳은 일종의 딸기 뷔페입니다. 백 개든 이 백 개든 드시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따서 드세요."라며 "꼭지는 바닥에 버리지 말고 나눠 드리는 이 컵에 담아주세요. 여러분이 딸기를 따 드시는 동안 외플을 구울 테니 직접 만든 딸기 잼을 발라드시고, 가실 때 직접 딸기 500g씩 가져가세요."라고 했다.

여정농원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대부도에서 처음 딸기 농사를 시작한 농가다. 1천320㎡ 농원에는 어른 팔꿈치 높이로 설치된 딸기 재배대가 50m 길이로 16줄 있다. 어린이 이들도 손쉽게 딸기를 딸 수 있다. 왕겨와 코코넛 껍질을 섞은 토양에서 만여 포기 딸기가 수경으로 재배된다. 꽃

가루받이는 벌들이 담당한다. 지난겨울부터 4월까지 생산된 딸기는 대부농협에 출하됐다. 5월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일반시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머니와 함께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지성(월피동, 11세) 어린이는 직접 딸기를 따서 먹고, 딸기가 열리기까지 교과서에서 배운 곤충의 역할도 관찰했다. "꽃과 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라고 배웠습니다. 벌이 꿀을 따는 대신 달고 맛있는 딸기가 열리도록 도와주는 현장을 보니 더 경이롭게 느껴집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태규 대표는 2017년 대부도에서 딸기 농사를 처음 시작한 청년 농부다. 조경기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포도 마이스터로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잇는 농업을 택했다. 보물섬 대부도에서 체험학습이 가능한 학습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업기술센터 조현숙 도시농업팀장은 "대부 농가가 포도농사 외에 딸기,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 재배로 수입이 늘어나길 기대하면서 기술지원과 시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가까운 곳에서 농촌 체험도 하고 가족, 이웃,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문 의 : 대부도 여정농원 이태규 대표(010-5509-8860)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우리는 자랑스러운 안산시 학생 명예기자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공연, 공연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일탈’



이예나
(석수중학교)

지난 5월 6일에 제14회 ‘안산 국제 거리극 축제’에 다녀왔다. 올해 거리극 축제에는 14개국 108개팀이 참가했다. 그 중 가장 재밌게 본 공연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인 ‘일탈’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마타헤르 바스(Marta Hervás), 자비에르 팔미노(Xavier Palmino)/네이로 모레노(Neilor Moreno), 누리아프라네스(Núria Planes)/아니에 자보(Agnès Jabbour), 피노스 타이너 (Pino Steiner) & 아드리아 비냐스 (Adrià Viñas)를 만났다.

Q. 안산을 오게 된 계기는?

A.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연하는게 목표라서 한국 (안산)을 방문했다.

Q. 공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내용은?

A. 제목이 많은 걸 말해주는데, 제목이 말하듯이 연관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음악이라는 하나의 의사

소통 장치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반응하고 서로 서로 전달되는 것을 ‘일탈 (CONSEQUÈNCIES)’을 통해 전하고 싶었다.

Q. ‘일탈(CONSEQUÈNCIES)’을 만들게 된 계기는?

A. 말이 아닌 몸 동작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연 팀을 알리기 위해 만들었다

Q. 공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힘들지 않았나?

A. 카타루니아에 있는 마을에서 공연을 하다가 팀원 한 명이 마을의 울퉁불퉁한 바닥에 착지를 하려다가 인대를 다쳐서 9개월 동안 다섯명이 같이 해야하는 공연을 4명에서 했다.

전성호
(양지중학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최고의 공연, 조르디 캐롤 “멋지다”

2018안산국제거리극 축제는 다양한 체험과 거리공연, 먹거리 등 여러 즐길거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공연부분에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쇼들이 펼쳐졌는데 그중 저글링 비트박스라는 공연이 여러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저글링 비트박스는 저글링과 비트박스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저글링은 둘이상의 물체를 던지는 묘기이고 비트박스는 입으로 드럼이나 EDM같은 소리를 내는 행위이다. 이 말만 들어도 어려운 저글링 비트박스는 아주 어려워서 엄청난 연습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어려운 일을 보여준 사람이 있으니, 그는 조르디 캐롤(Jordi keroi)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EDM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이일을 하다가 혼자서 하게

되었다고 한다. 15년 동안 저글링 비트박스를 해왔는데 그만큼 실력도 좋아 이번 거리극 축제 때 엄청난 쇼를 보여주었다.

그는 관객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공연을 진행해 나갔다. 화려한 저글링과 멋진 비트박스를 보여주 때마다 관객들은 함성을 질렀다.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아쉬워했다. 양지중에 다니는 양준서 학생은 “내가 본 공연 중 최고의 공연이었다. 거리극축제에서 본 공연 중 제일 멋있었던 것 같다. 너무 멋져서 동영상으로 찍어 놓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에도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멋지고 완벽한 공연이었던 것 같다.

그가 이렇게 멋진 공연을 준비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는

“일본에서 공연하다가 우연히 안산 거리극 축제를 알게 됐다”며 “거리극 축제를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노력의 결과

로 멋진 무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뻐다”고 했다. 그는 무대를 마치면서 “관객들이 매너 있고 호응을 잘해주어서 무사히 공연을 마치게 되었다.”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덕분에 더 멋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하음
(해양중학교)

서로 배려하며 즐기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만들어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매년 화려함을 보여주는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이다. 과연 이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혼자만의 힘으로 화려해 질 수 있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안산국제거리극 축제를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6일 안산거리극축제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경옥, 서윤자 자원봉사자를 만났다.

Q. 거리극에서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A. 거리극과 같은 축제에서는 쓰레기 줍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연 등을 볼 때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질서 지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 공연이 끝난 자리에서 다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공

연한 장소를 깨끗이 정돈하는 일도 합니다. 이외에도 전시 등을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 사진을 찍는 일, 주차를 도와주는 일 등 여러 가지의 봉사활동이 많습니다.

Q. 자원봉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먼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쓰레기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다 줍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사람들 간의 조금씩의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접촉을 불쾌하게 여겨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축제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씩 이해하면서 더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Q. 혹시 다른데서 봉사 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A. 거리극 말고도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요

즘에는 순찰봉사를 하고 있는데, 초지역에서 집으로 가시는 여성분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멀더라도 다 승용차를 타고 집 앞까지 데려다 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귀가하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하신다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빛나교회 미용봉사단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원곡동 다문화광장에서 봉사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원곡동 다문화거리 내 광장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행사가 마련된다. 빛나교회 미용봉사단이 나와 어르신들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주고 하얀 머리는 염색도 해준다.

“어르신들의 미용실 가는 작은 돈이라도 아껴드리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미용봉사는 벌써 수 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한 번에 약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인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각자 역할을 나눠 봉사하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필요한 용품은 교회 후원이나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다.

빛나교회 미용봉사단은 교회 근처 병원과 장애인 시설에서도 봉사하고 있으며, 노인정을 방문해 미용과 전도를 병행하기도 한다. 또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효도관광에 어르신들을 초대하거나 바자회 물품을 후원하기도 한다. 특히, 일요일에는 교회를 오가는 교통편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문화광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머리카락도 자르고 염색도 하니 좋지만 그 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좋다.”며 “여기 광장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잊지 않고 몇 년째 커트도 해주고 염색까지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미용봉사단 오춘희(62세) 씨는 “처음에는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옆에서 도와 주는 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미용을 배워서 머리로 자릅니다. 미용봉사 외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을 찾아와 급식을 나누며 일손을 돕고 전도도 하고 있어요. 봉사하기 전부터 어르신들께 어떤 기쁨을 드릴까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행복입니다. 봉사가 남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면 할수록 보람이 더 커지는 거 같아요.” 라고 했다.

봉사단 관계자는 “처음에 경계심을 갖던 다문화광장 어르신들이 많이 변화되었다. 어둡고 칙칙했던 거리도 밝아진 느낌이고, 주민들의 격려도 이어진다.”며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개사된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다.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언제나 행복이 머무는 다문화광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문 의 : 빛나교회 미용봉사팀(010-4377-9832)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제6회 ‘마을에서 놀자’ 어린이날 축제

주민들이 기획·운영, “동네에서 또래 친구들과 마음껏 놀자”



유아들은 아빠들이 연결한 긴 상자터널을 기어 다니며 ‘까꿍 놀이’를 하거나 발 그림 그리기를 한다. 초등학생들은 친구들과 보물찾기 쪽지를 찾으러 풀숲을 돌아다녔고, 림보 게임을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아빠들은 가족들과 투호 놀이와 굴렁쇠 굴리기를 함께하며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갔다.

5월 5일 사동 수인선 지상 공간에 조성된 어울림 공원에서 열린 제6회 ‘마을에서 놀자’ 어린이날 축제 풍경이다. 매년 감골주민회 주관으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 축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꾸며졌다.

넓은 잔디밭 곳곳에 상자터널과 물놀이 터, 거미줄 피하기, 협동놀이 공간이 설치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고, 가족들은 주변 그늘에 돛자리를 깔고 여유롭게 먹거리와 공연을 즐겼다. 특히 올해는 시간과 수량이 제한된 체험 부스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

한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날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발자국 이어가기, 거미줄 피하기, 물 전달하기, 협동 기차놀이 등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 작은 선물과 간식을 증정했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이벤트도 풍성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댄스타임 무대는 ‘상어가족’ 노래를 선곡해 아이 어른 구분 없이 신나게 춤을 추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문화공연도 풍성했다. 마을 합기도 학원의 시범공연으로 시작한 축제는 창작연희그룹 ‘백희’의 사물판 굿, 성안고 댄스부, 마술사 원태윤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2회 공연을 한 원태윤 마술사는 수정구슬 저글링과 불 쇼 등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먹거리도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12미터 테이블 위에 펼쳐진 색색가지 재료를 함께 비벼서 나누는 비빔밥 퍼포먼스의 인기가 높았고, 3백 원짜리 쿠폰으로 떡볶이와 김치전, 핫케이크도 즐길 수 있었다. 특히 핫케이크와 계란후라이는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 셋과 함께 축제를 즐긴 송보영 씨는 “어린이날 멀고 복잡한 놀이공원이나 비싼 장난감을 사러 마트에 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또래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즐길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 내년이 벌써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제를 기획한 감골주민회 이영임 대표는 “그동안 동네 작은 놀이터에서 진행된 어린이날 축제를 올해는 주민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넓은 어울림 공원으로 옮겨 열었는데 인근의 다른 동 주민들도 많이 온 것 같다”며 “전문가 도움 없이 마을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다 보니 준비과정은 쉽지 않지만,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에서 놀자’는 앞으로도 8월 마을영화제, 10월 마을음악회까지 계속 이어질 계획이다.

◇ 문 의 : 감골주민회(031-408-7601) /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캠페인, “쓰레기도 자원이다!”

재활용은 똑똑한 분리배출이 답이다!

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시작된 후 약 20여년이 흘렀다. 쓰레기 종량제는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했지만, 최근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며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자는 움직임과 함께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커져가고 있다. 이에 브라운산은 시민들이 재활용률을 높이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이달부터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생활하수 등 네 번에 걸쳐 생활폐기물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전량 수거

폐기물은 크게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폐기물로 나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보내지며, 폐지, 의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업체가 처분한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지역은 안산시에서 수거하여 안산시재활용선별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 아파트, 대단위 연립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개별 단지가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고 유가성 재활용품은 매각처리한다. 이번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던 지역은 모두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단지들이었다.

안산시는 이전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 전체 103개소의 페닐·스티로폼·잡병을 전량 수거해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14개 아파트 단지의 민간 재활용업체가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한 바 있다. 이곳 1만5천69세대(전체

의 16%)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매월 약 50톤 규모로 안산 시재활용선별센터에서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쓰레기 줄이기, 작은 실천 생활화해야

안산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015년 16만8천839톤, 2016년 17만3천958톤, 2017년 17만6천815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수집 운반비 282억, 소각 매립 109억, 음식물 처리 58억6천, 대형폐기물 10억, 중계처리 7억 등 연간 467억의 비용이 든다.

안산시 자원순환과 최금대 주무관은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면 하수처리 비용과 운반비를 줄일 수 있으며, 폐유를 휴지로 세척하면 하수관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썩지 않는 비닐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작은 실천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나아가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산시재활용선별센터 이종채 자원재생팀장은 “공동주택은 대부분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등에서는 골목 앞에 내놓은 재활용품이 품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데다 수거차량이 한꺼번에 실어오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한다.”며 품목별 순차적 선(先) 수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활용은 잘 배출하는 것에서 시작

안산시재활용선별센터에서는 쓰레기가 자원으로 재탄생되고 있었다. 수거차량이 부려놓은 재활용품들로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반입장에서 두 명의 인부가 쓰레기 더미를 컨베이어 위로 올리자 비닐봉지를 뜯어주는 파봉기가 풀어헤친다. 이후 각종 폐기물들이 1차 선별장에 도착하면 8~9명의 사람들이 컨베이어 위에서 유리병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고철을 선별하는 자력선별기를 통과시킨다. 다시 2차 선별장에서 깨진 유리 등 이물질과 캔, 페트병을 분류한다. 스티로폼에 붙은 테이프와 택배스티커를 제거하던 윤명숙 씨는 “선별장에서 근무한 지 3개월 됐는데, 음료수병은 물론이고 된장, 고추장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보며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할 일회용 기저귀나 음식물이 든 컵라면 용기가 수없이 나옵니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작업자의 손과 기계를 거쳐 압축된 비닐·플라스틱·고철 더미와, 따로 분류된 우유팩과 폐지가 쓰레기에서 자원으로 환골탈태해 몸값을 키우고 있었다. 대형폐기물을 제외하고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은 월평균 1천600톤, 선별량은 1천200톤으로 75%를 선별하며 재활용품으로 연간 10억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종채 팀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재활용품은 깨끗이 잘 구분해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 페트병 뚜껑은 플라스틱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야하고, 페트병 등에 부착된 비닐도 제거하고 폐지와 우유팩은 구분해서 배출해야 재활용 등급이 올라간다.”며 자원으로서의 재활용 분리배출을 설명했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제대로 알자, 생활쓰레기

유리병류

탄산음료병이나 맥주병, 소주병은 담배꽂초와 같은 이물질들을 넣지 말고 버려주세요.

거울, 깨진유리, 도자기류, 유리식기류는 유리병류가 아닙니다. 종량제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제대로 알자, 생활쓰레기

비닐류

과자, 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투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2~3번 헹구주세요. 이물질 제거가 어렵다면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제대로 알자, 생활쓰레기

스티로폼

농·수·축산물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라면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 등 이물질이 많이 묻은 스티로폼은 쪼개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됩니다.

제대로 알자, 생활쓰레기

플라스틱류

용기에 든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해주세요.

단, 분리배출 표시가 없거나 알약 포장재와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독자
수기

안산시의 자전거 안전 캠페인을 보고

며칠 전 상록수역을 지나다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행사를 여는 장면을 봤다.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 제복 입은 경찰관, 자전거 관련 단체, 시민과 봉사자 등 많은 분들이 나와있었다. 초미세먼지 증가 등 환경문제로 인해 대기환경을 맑게 하자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이용이 늘고 그에 따른 자전거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캠페인을 하는 듯했다.

안산은 이제 명실상부한 자전거 도시가 되었다. 안전모를 착용한 행사요원들이 시민들에게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전거 도시의 시민으로서 꼭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 안전 중 음주자전거의 위험성이다.

필자는 한 달 전쯤 초지역을 지나 백운공원쪽으로 라이딩을 나섰다가 10여명의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길가 편의점 파라솔 아래서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 그저 약간씩 목을 축이는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맥주 한캔이 두캔 되고, 두 캔이 소주 파티로 번질 수도 있는 게 술이다. 또한 그날의 날씨나 분위기에 따라 술은 얼마든지 거나하게 들어갈 수 있다.

상식적으로 자전거는 대리운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팽겨둔채 버스나 지하철을 타

고 집에 돌아갈 수 없으므로 결국 100% 음주 자전거타기가 되는 것이다.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위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한번은 인도를 건넌 중 나에게 확 달려든 자전거를 피한 적 있는데 이때 “미안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입에서 확 풍기는 술 냄새를 맡은 적도 있다. 그러니 술을 마시고 한밤중이나 빗길, 혹은 겨울철 눈길에 자전거를 탄다면 더욱 위험할 것이다.

그리고 술을 마신 뒤 취한 자전거 운전자가 비틀거리다가 차도로 돌진 했을 때, 이 자전거 뒤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나 버스가 그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확 틀었는데 그로 인해 다른 차들과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면? 결국 음주운전 자전거 한 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다. 자전거 도시의 시민으로서 안산시민들 모두는 음주자전거를 절대 하지 않는 시민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유민규(상록구 초당로)



경찰
기고

미아방지, 이렇게 대처하자

봄을 맞아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단위 외출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놀이공원과 유원지를 포함, 각 지자체까지 나서 관광객 유치에 위한 축제와 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 이처럼 자녀들과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매년 4, 5월경에는 미아 신고 건수가 다른 달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미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은 물론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미아방지에 대한 요령을 수시로 교육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미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자녀와 함께 외출했을 때에 가까운 은행, 편의점, 마트, 화장실, 공원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자녀와 함께 있도록 한다. 둘째, 자녀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손목 팔찌, 목걸이 등 미아용품 착용하도록 한다. 셋째, 자녀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어 놓을 때는 바깥에서 쉽게 볼 수 없게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에 적어 놓는다. 그래야 낯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유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부모님은 평상시 자녀에게 자신과 부모님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살고 있는 곳 등을 외우도록 한다. 특히, 미아 발생 시 자녀의 성장사진이 결정적 단서인 만큼 자녀의 사진을 저장해 둔다.

다섯째, 낯선 사람이 과자나 장난감을 주면서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여섯째,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경찰청 안전 드림(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나 모바일 웹(m.safe182.go.kr)을 통해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자녀의 사진과 지문등록만으로 미아방지 지문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한다.

일곱째,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는 안절부절 하며 넋 놓고 있지 말고 신속히 112로 전화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가정의 달 5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유비무환으로 소중한 자녀의 미아·실종을 예방하자.

•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외국인
수기

나는 안산의 해결사

2009년 2월,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의 통역상담원으로 입사했다. 센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상담이 들어왔다. 임금 체불, 사업장 변경, 의료, 폭행, 부동산 등등의 상담을 할 때마다 머리로 아프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꿈에까지 나타났었다. 어느 날 인도네시아 근로자와 다른 나라 근로자의 싸움이 있어서 경찰서에 통역을 가야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가슴이 벌렁 벌렁 거리며 통역을 잘 할 수 있는지 너무나 무서웠다. 경찰서 통역이 끝나고 검찰청도 통역 요청을 했다. 검찰청에서 끝나고 나니 마지막 법원에서 통역 선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나오고 무서웠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니 지금은 전화가 와도 무섭지는 않다. 한번은 여러 명 근로자가 상담을 왔는데 다른 친구가 H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이 가서 병원을 방문하는데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외국인이 보증을 할 수 없고 한국인이 보증을 해야 한다고 했다.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단 근로자가 수술을 해야 하니 보호자로 서명을 하고 왔다. 나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그 일을 얘기하는데 남편이 반대로 화를 내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보호자로 서명을 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 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한테 있다고 말했다. 나는 당황해서 그날부터 잠이 안 왔다.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늘 불안하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다행히 근로자가 건강해져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현재는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늘 나한테 고맙다고 현재까지 소식을 전달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해결해 주는 상담과 근로자들을 세어보지는 안했지만 적지 않은 수일 것이다. 상담을 통해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느낀다.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장님들도 인정하는 상담원이 됐다. 그래서 '2015년 경기도 시민상'을 받고 2017년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모범 상담원상도 받았다. 나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을 위해 더 열심히 상담하고 노력하고 싶다.

• 예코

(*이 글은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에서 발간한 '수기집'에 실린 것으로, 일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지만, 글쓴이의 뜻을 살리기 위해 원문 그대로 표기함.)



책속의 책, 독서하는 즐거움

“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책이 만든다”



아동



나를 찾아줘

저자 오라 파커
출판사 푸른숲 주니어

주인공인 대벌레 하이디는 교실 안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는 수줍음 많은 아이를 상징합니다. 그런 하이디가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독자는 낯선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어 돕는 방법도, 친구가 내민 손을 즐겁게 맞잡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홉살 마음 사전

저자 박성우
출판사 창비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동시에 어린 독자들에게 '감정'을 알려준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을 그림과 함께 사전 형태로 소개한다.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 80개를 구체적이고 실감 나는 글과 그림으로 만날 수 있도록하며 다양한 감정 표현을 익힘으로써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

저자 고정욱
출판사 사계절

장애아뿐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이 겪을 수도 있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저학년 창작동화로 저자 자신도 소아마비 1급 장애인으로 작품에서 주로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다뤘습니다. 장애 때문에 아이들에게 따돌림받는 영택이와 그런 영택이의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놀림당하는 석우, 그 둘 사이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과 그로 인한 석우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면서 보는 이에게 '배려'와 '존중'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청소년



시간을 파는 상점

저자 김선영
출판사 자음과모음

소방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빠의 뜻을 이어받은 주인공 온조. 인터넷 카페에 '크로노스'라는 닉네임으로 '시간을 파는 상점'을 오픈해 손님들의 어려운 일을 대신 해주면서 자신의 시간을 판다. 범인으로 지목된 아이가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PMP3 도난 사건에 대한 의뢰, 할아버지와 맛있게 식사를 해달라는 영동한 의뢰, 천국의 우편 배달부가 되어 달라는 의뢰 등 여러 가지 의뢰가 이어진다.



모두 감언

저자 김중미
출판사 창비

강화도 농촌에 사는 여중생 유정이를 중심으로 서로 연대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농촌 공동체 속 인물들의 따뜻한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자신의 삶과 글쓰기를 일치시켜 온 저자는 강화에 13년 간 거주하며 알게 된 농촌 지역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다문화 가정 문제, FTA, 구제역 등 농촌 사회의 여러 이슈를 사실적으로 담담하게 그려내면서도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를 잃지 않으며 청소년 주인공의 시선에서 희망을 말한다.



토닥토닥 명언 노트

저자 허시봉
출판사 슬로래빗

옛 현인들이 남긴 명언은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영양분이 되고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는 약도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특히 명언과 고사성어를 직접 쓸 수 있는 필사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한 꼭지를 골라 읽고, 직접 써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의미가 깊이 다가올 것이다. 하루 10분,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으로 사춘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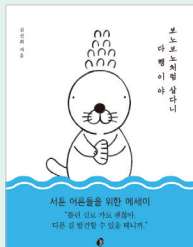
성인



끝림

저자 이병률
출판사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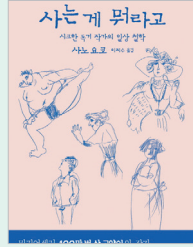
시인이자 MBC FM '이소라의 음악도시'의 구성작가였던 이병률이 1994년부터 2005년 초까지 50여 개국, 200여 도시를 돌며 남긴 순간순간의 기록이다. 여행자의 가슴에 남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을 보여준다. 뚜렷한 목적이나 계산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길 위에 머물면서 저자는 스물아홉에서 서른아홉이 되었다. 그 시간 동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미국, 모로코, 페루, 인도, 네팔 등을 여행하며 눈에 담은 풍경들을 감성적인 글과 사진으로 풀어냈다.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저자 김신희
출판사 놀

보노보노가 서른이 되어가는 동안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어린이들 역시 이제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사는 게 잘 모르겠고, 솔직해지려 하면 할수록 자신만 손해본다는 느낌에 스스로를 감추게 된다. 어른은 어른인데, 아직도 사는 데 소질 없는 '서툰 어른'이 된 것이다. 아직도 서툴기만 한 우리들을 위로해줄 문장들을 고집내어 엮은 책이다. 어린 시절엔 마냥 엉뚱하고 귀엽게 느껴졌던 보노보노 속 에피소드와 대사들은 다시 보면 어른이 된 지금의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사는게 뭐라고

저자 사노 요코
출판사 마음산책

2년 뒤에 죽는다는 시한부 암선고를 받았음에도 '죽는 날까지 좋아하는 물건을 쓰고 싶다'며 당당히 쇼핑에 나서는 사노 요코. 이 책에는 아주 간단한 진실이 담겨있다. '인생은 번거롭지만 먹고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 이렇듯 사노 요코의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면, 뜨겁고 감성적인 면이 뒤섞인 이 매일 매일의 기록은 읽는 이의 마음을 소소하게 위로해준다.